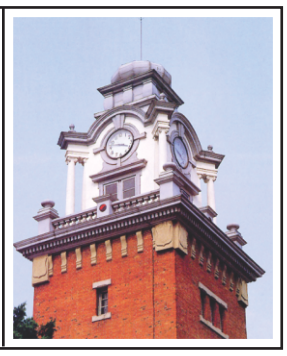
時計塔
SIGET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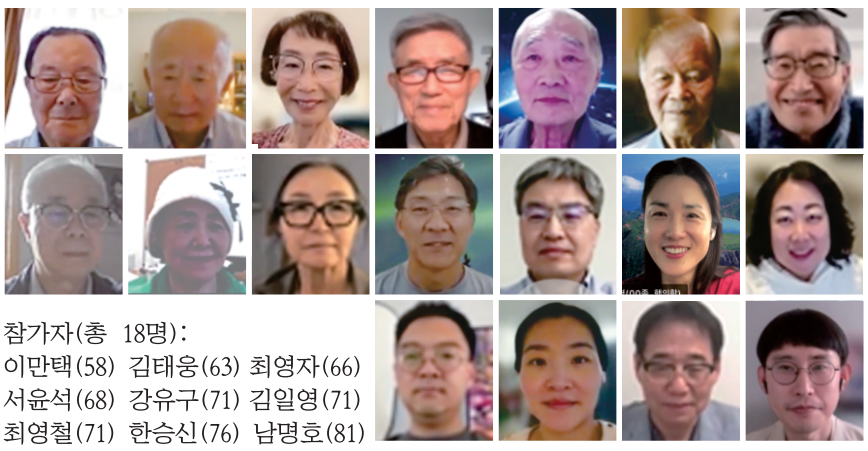
2026년 10월 20일 | 서울大學校醫科大學北美洲同窓會誌 | 제54권 4호

2150 Wise Street #4227, Charlottesville, VA 22905
Tel: (516) 365-5500
snucmaa@yahoo.com

발행처: 서울의대북미주동창회
편집인: 徐倫錫
편집위원: 金明源 盧英一 徐 亮 羅斗燮 徐仁錫 徐貴淑 朴恩景
자문위원: 盧鎔冕 金炳晳
www.snucmaaus.org

2026-27 제1차 이사회 초록

2026년 10월 10일(토요일) 동부 오후 3시, 서부 낮 12시, Zoom 화상회의



참가자(총 18명):
이만택(58) 김태웅(63) 최영자(66) 서윤석(68) 강유구(71) 김일영(71) 최영철(71) 한승신(76) 남명호(81) 서귀숙(84) 김자성(85) 강민종(91) 박은경(00) 박혜성(06) 이익재(08) 송경민(09) John Baek(Fund Manager) 곽귀병(사무장)
Proxy:
한기현(63) 최준희(64) 최순채(66) 조병선(71) 김성환(71) 정균희(72) 서인석(73) 한민우(75) 전경배(75) 신원석(88) 이선규(89) 장세권(01) 허원제(02)

1. 2026년 10월 10일(토요일) 동부시간 오후 3시(서부시간 정오)에 zoom 화상회의로 제1차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참가자의 표결수는 19표로 정족수 표를 초과하여 개회가 성립되었다. 참가자들 전원의 소개가 있었다.

지난 회의 초록(2026년 4월 11일 제2차 이사회 및 대의원회)을 낭독하고 참가자 전원의 확인 및 동의가 이루어졌다.

2. Advisory committee report(58 이만택 보고):

① 의과대학 의사 과학자 양성기금으로 서울대학교 미주재단에서 매년 $300,000를 10년간 지원하기로 미주재단 이사장, 서울대 총장, 의대 학장이 MOU에 서명한 바 있다. 미주재단에서 금년 지원금 $300,000를 의대에 송금하였다.

② California Riverside에서 소아과를 개업하신 구철회(84) 동문께서 모교 의과대학에 장학금으로 $70,000를 기부하셨다.

③ SNU/MIN Student Exchange Project 관련하여 조만간 양 대학간의 서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④ 의대 66년도 졸업 동기들이 10월에 졸업 6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졸업 60주년 기념으로 모교에 '의사 과학자 양성 지원금'으로 $68,000를 기부하셨다.

3. Charity committee report(66 최영자): 지난 회기에 이어 St. Jude Hospital에 $5,000를 기부할 계획을 발표하고 의결받았다.

4. 시계탑 편집위원회 보고(68 서윤석):

① 서울의대총동창회가 발행한 동창회 명부가 선편 배송을 시작했다. 2024년에 북미주동창회에서 발간된 주소록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뉴욕, 워싱턴 DC, 시카고, 아틀란타, LA 지역의 각 동문이 직접 수령 및 배포 예정이다.

② 시계탑 발행 일정을 공유하고, 필진 감소의 어려움 속에서도 편집위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동문 및 배우자 분들의 작품 제출을 독려한다.

5. By-Laws committee report(73 서인석, 76 한승신):

추후 회장 선임 상황과 운영위원회 체제의 지속 필요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회칙 수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고되었다.

6. Finance committee (71 김성환): 특별한 보고 사항은 없음.

7. Fund Raising committee(공석): 전임 위원장 사퇴 이후로 위원장 공석 상황이다. 이후 안건에서 신임 위원장 추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8. Research & Fellowship committee report(06 박혜성):

① SNUCMAA Research Grant (한승신 연구기금): 2026-2027 Grant 수혜자인 이준구(09) 동문에게 공고 내용에 따라 지난 9월 1일 1차 연구비가 지급되었다.

② SNUCM-SNUCMAA Research Grant (서울의대-미주동창회 국제 연구기금): Grant 수혜자인 윤순호/곽낙원 팀에게 연구비 지원이 완료되었다.

9. Scholarship committee report(08 이익재):

① 장학위원회에 새로운 임원을 한 분 모셨고, 현재 장학위원회 구성이 소개되었다.

② 서울의대 학생들의 미주 실습을 지원하는 그린 프로젝트 장학금 수혜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실습을 마치고, 5명 학생 모두 보고서 및 감사편지를 제출했다.

③ 2026-2027년 미주교포장학금 지원자 26명 중 학업성적, 진로, 가정형편, 지역형평 등을 고려하여 장학위원회에서 13명을 선발하였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승인 및 의결이 이루어졌다(자세한 내용은 이번 호 기사 참조 요청).

10. Treasurer Report(84 서귀숙, 사무장 대리 보고):

① 지난 54대 회기(남명호 회장)에 관한 정산 내역이 보고되었다. 운영비 관리 계좌를 중심으로 입출금 내역과 함께 기부금 세부 내역별 잔고가 보고되었다.

② 2026년 7월 1일-2026년 10월 5일간 운영비 관리 계좌의 입출금 내역이 보고되었다. 이와 함께 현재일 기준으로 운영비 외 기부금 세부 내역별 잔고가 보고되었다.

11. Fund Management committee Report(John Baek, 71 강유구) :

먼저 John Baek 펀드 매니저가 현재 펀드 관리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① 현재까지의 2026년 수익률은 paid divedends를 포함하여 YTD +3%이다. 2026년 이후 계속되는 uncertainty over Tariff policy와 전쟁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높이고 있다.

②투자금액 중 재투자 되지 않고, INPOINT+CIM에서 매달 은행으로 올해 받은 금액은 현재 $856+$866= $1,722이다.

③ AXA Lifetime payment 올해 받은 금액 포함하여 현재까지 받은 총금액은 $205,308이다.

④ 12/2024에 투자한 Allianz Stock Index $36,000은 현재 $44,075이다.

⑤ 10/2024에 Bank CD로 투자한 $100,000과 10/2025 추가 투자 $50,000은 현재 합계 $159,450이다.

이어서 강유구 위원장의 보고가 이어졌다.

① 운영비 통장 계좌에서 매해 1만 달러를 장학기금으로 이전하기로 했던 기존 이사회 결정에 대한 재확인이 요청되었다. 이 결정을 원칙으로 하되, 각 회기 정산 내역을 고려하여 매해 1차 이사회에서 장학기금 이전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② 현재 동창회 운영비 계좌에서 장학기금으로 이전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지난 회기 회원들의 장학 기부금 잔액, 장학기금 이자 잔액과 함께 현 회기 사용되지 않을 장학금에 대한 이전이 결정되었다.

③ 주요 장학금의 사용 시기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에 맞춰 장학기금이 운영될 예정이다.

12. Green Project report(02 허원제, 사무장 대리 보고):

지난 호 시계탑에 故 박세준 Primary Care Fund Community Health Project Grant Program의 접수 마감이 10월 31일(토)로 예정되어 있다. 공고 접수 현황에 따라 적격자 선발 혹은 대체 프로그램 공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13. Nominating committee report(81 남명호):

① 신임 회장 선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임이 어려운 상황을 공유했고, 여러 회원들의 자천과 타천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② 지난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故 이원택(71) 이사를 대신하여 강유구(71) 동문을 신임 이사로 선임했다.

③ 현재 공석인 Fundraising Committee 위원장 선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후보군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함을 공유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에서 적절한 제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14. Executive Council report(91 강민종): 회장 공석 상황에서 임시체제를 운영중인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아래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① 회원 부고를 현행 방식(고인의 동기 및 같은 지역 동문에게만 이메일 공지)에서 벗어나 전체 회원에게 이메일로 공지하는 안이 제기되었으나, 이사회 표결 결과 기존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② 최영철(71) 이사가 서울의대동창회에서 보내는 달력의 배송 비용을 북미주동창회 사무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동창회 재정 상황과 달력 배송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기존대로 각 지부에서 자체적으로 달력 수령을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③ 서울의대 총동창회에서 10월 말까지 장기려의도상과 함춘학술상 추천을 받고 있는 상황을 공유했다. 임시 운영 체제의 어려움과 최근의 수상 현황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④ SNUCM-SNUCMAA Research Grant(서울의대-미주동창회 국제 연구기금)과 관련하여 재정 마련 방안 등을 비롯하여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이 공유되었다. 추후 운영위원회가 적절한 제안을 준비하여 제1차 대의원회(2027년 1월 예정)에서 보고하기로 하였다.

⑤ 최소한 다음 운영위원회까지 강민종(91) 동문이 임시 운영위원장직을 유임하기로 결정했다. 조속한 회장단 구성이 필요한 상황임이 다시금 공유되었다.

Executive Council Meeting Report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강민종(91) 임시운영위원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민종 임시운영위원장은 서귀숙 Office Management Chair와 함께 동창회 사무장을 관리 · 감독하고, 주요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토) 개최된 제1차 이사회도 임시 운영 체제 아래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호에 소개된 여러 기사에서 보시듯이, 동창회의 장학 사업과 연구 사업은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회장단이 부재한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거나 추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년도에 예정된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연례 학술대회"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점이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비록 회장단이 구성되지 못한 상황에서라도, 기존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동창회의 주요 업무가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빛나는 전통을 자랑하는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의 임시 운영이라는 중책은 강민종(91) 임시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운영위원들에게 큰 영예이면서도 또한 무거운 책임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신임 회장단이 출범하여 정상적인 동창회 활동이 재개될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차기 회장 후보 추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Virginia-Washington 지역 동창회 소식



박수웅(69), 김병오(69) 회장단에 의하여 준비된 가을 맞이 동창회 모임이 Fair Oak Mall, Fairfax Virginia에 위치한 Khan Restaurant에서 9월 23일 12시 정오에 열렸다. 김병오 사회로 진행된 첫 번째 순서로 개회 선언에 이어서 모두 기립하여 서울대학교 교가를 조병선(71)의 리드로 힘차게 불렀다. 같이 동참하신 부인들도 함께 불렀다. 이어서 그동안 작고하신 한달수, 한광수 동문을 기리는 묵념이 있었다. 이어서 가장 연장자이신 이종국(58) 님과 김부근(58) 님이 참석하여서 박수를 받았다. 박수웅 회장의 간단한 개회 인사말이 있은 후 이어서 각자의 자신과 부인의 소개를 해서 웃음과 박수가 장내를 채워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다.

다음 순서로 서윤석 편집장의 동창회와 모교의 임원 변동사항과 시계탑에 연관된 미주 동문들의 활동 사항을 알렸다. 첫째로 서울의대 총동창회 한규섭 회장님은 현재 내년 3월까지 임기인데 그 유임여부는 미정이다. 서울의대 학장은 김정은(93) 님의 후임으로 지난 1월부터 내과 임재준(94) 님이 취임했으며 셋째로 서울대학교 병원장으로 지난 미주 학회에 참여했던 흉부외과의 김영태(88)님의 후임으로 재활의학과 백남종(88) 님이 취임했으며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회장 직무는 지난 7월부터 운영위원들이 4개월씩 순서대로 담당하는데 현재는 강민종(91) Yale 대학 호흡기내과 교수가 의장으로 현재 책임을 맡아 수행중이며 또한 서울대 동문인 곽귀병 사무장이 동창회 업무를 잘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4년마다 서울에서 발행하는 동창회 명부가 선편으로 오고 있으며 도착되는대로 각 지역에 한 부씩 배부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쁜 소식으로는 우리들의 후세가 미국 사회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한 예로 김주평(68)-서영희 부부의 장남 Daniel Kyungmin Kim 군이 메릴랜드 주의 Prince George County의 District Court의 판사로 지난 7월에 임명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시계탑 편집위원인 나두섭(73) 동문이 연세대학동창회와 워싱턴 윤동주문인회가 주관하는 제8회 미주 윤동주문학상에서 영예로운 대상을 받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박인영(75) 동문이 근래에 〈민족을 구하려다 악인이 된 영웅 춘원 이광수〉라는 책을 발간하였다고 전했다. 시계탑 기사로 자세한 책 소개 있다고 말했다. 1997년, 거의 30년전에 정신과를 전공하던 고 이중오(64) 동문이 〈이광수를 위한 변명〉을 발행하여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더니 이 두 책자의 가치와 내용의 찬반 여부는 훗날 역사가 판단하겠지만 두 동문들이 보여준 전문가를 능가하는 노력에 모두들 찬사를 보냈다.

만찬이 끝난 후 Nephrology 전공인 박수웅(69) 회장의 특강 〈백세시대의 콩팥은 안녕한가?〉는 간단한 질문과 대답으로 궁금한 점만 논하고 본 강좌는 다음 기회로 미루었다. 부부가 참석한 동문은 사진 뒷줄 좌로부터 서윤석(68) 배성호(71) 조병선(71) 신용계(68) 신백효(65) 김철(68) 김제홍(71) 장현식(70) 김희주(68) 박동수(71) 주광국(68) 김병오(69). 앞줄 좌로부터 채무원(65) 진창건(61) 이종국(58) 김부근(58) 김진홍(68) 유달(67) 박수웅(69) 김주평(68). 사모님 오신 분은 Mrs. 이중오(64) 임낙중(59) 한달수(59) 총 41명이다.



장학생 선발 현황은 아직 검토 중이라 확정된 수혜자 학생 명단을 기다리는 중이고 김병오 남명호 전 회장이 맞이한 지난 7월 초에 있었던 4명의 모교 4년차 학생의 방문에 대한 소식은 지난 7월호에 게재되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김병오-박수웅 회장단의 첫 출범이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모두들 박수를 보냈다. 글; 편집인 9/23/2026

2026년도 기부금 소득공제 혜택 안내

내년에 진행하실 2026년 세금 신고부터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적용받는 납세자도 기부금에 대해 추가적인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의대북미주동창회는 IRS에 등록된 세금 면제 단체로 회비 및 기부금에 관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부하신 회비 및 기부금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영수증을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영수증 재발급을 원하시면 사무실 이메일(snucmaa@yahoo.com)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다른 단체에 기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점검해보실 수 있도록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동창회 세무 업무를 맡고 계신 한갑수 회계사님께 자문받은 내용입니다).

공제 대상: 표준공제를 선택하더라도, 적격 기부 단체에 대한 '현금 기부(Cash Contribution)'에 한해 싱글은 최대 $1,000, 부부합산 신고 시(Married Filling Jointly) 최대 $2,000까지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주의: 본 공제는 현금 기부에만 적용됩니다.
의류, 물품, 재산 기부 등 비현금 기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격 단체 확인: 기부 대상 단체가 IRS에 등록된 세금 면제(Tax-Exempt) 단체(501(c)(3) 등)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빙 서류 보관 (매우 중요): 세무 감사 시 증빙을 위해 기부 사실, 금액, 날짜가 명시된 은행 기록(Bank records)이나 기부 단체로부터 받은 서면 통지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건당 $250 이상의 기부인 경우, 기부 당시 해당 단체로부터 받은 서면 확인서(Contemporaneous written acknowledgment)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다만 세법은 개인의 구체적인 소득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개별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Laguna Woods Village 소식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대형 은퇴촌이다. 입주 자격이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YouTube를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온다. 대략 이야기를 하면 주민수가 1만 8천 명 정도이고 가구 수는 1만여 채 정도가 있는 Gate Community이며 주민이 운영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대략 2인 1가족이라고 볼 수 있다. 가구는 Condo, Duplex style, Single house 등 다양하지만 1-3 bedroom뿐이다. Studio style은 없다. 가격은 광고에 나오는 것을 보면 3십만 달러에서 2백만 달러까지 다양하다. 부대시설로는 27홀과 Par3 골프 코스, 5, 6개의 swimming pools, 7개의 club houses, equestrian center, 4 tennis courts, 4 pickle ball courts, 2 fitness centers이 있다. 인구 분포는 다양하다. 백인이 많고 흑인은 극소수인데 중국, 대만, 필리핀, 중동, 인도 사람도 많다. 한국 사람은 약 3천여 명 정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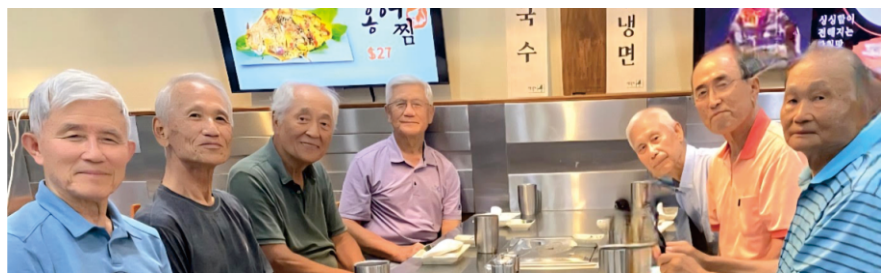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졸업자가 100명이 넘고 의대 동문이 61년 졸업부터 72년 졸업까지 30여 명이 된다. Irvine까지 합하면 40-50명은 될 것이다. 대부분이 선배들이고 후배는 몇명 안된다. 64년 졸업 김태환 선배, 65년 졸업 김성수 선배도 여기에 사시고 69 졸업 서만길, 김윤성, 이용환, 연세의대 김용묵, 70년 졸업 최광택, 71년 졸업 이남수, 양주석이 이곳에 거주하고 그 이외에도 타 대학 출신 의사들이 10여 명이 같이 어울려서 매주 골프를 한두 번씩 모여서 치면서 우의를 다짐한다. 특히 연세대 출신 김용묵하고는 매주 3-4번 치는 골프 버디이다. 그 이외에도 200여 개의 취미클럽이 많아서 노래방, 합창반, 미술반, 고전 무용반, 난타반, 관악기반 등등이 있다.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져서 어떻게 죽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생명 연장과 Quality of Life를 생각하게 된다. 나는 Quality를 우선으로 보았는데 최근에 이곳에서 한 분이 오랜 지병으로 Dysphagia가 되어서 Gastrostomy를 하고 나서 상태가 호전되어 사는 것을 보고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서윤석 편집장이 보내온 10문 10답으로 쓰려고 하다가 나보다 더 좋은 글을 보내시는 동문들이 많으니 나는 대신 이 글을 보낸다. 1962년 청량리 건물로 의예과에 입학하여 함께 공부했던 버지니아 그곳의 신용계, 김주평, 주광국, 김희주, 김철, 김영덕, 정재성 동문들에게 안부를 전하며 먼저 작고한 서진석의 부인, 그리고 우리의 좋은 친구 서관우의 부인 Mrs. 임석교 님에게도 안부를 전한다.

Laguna Woods Village에서… 변영석 (69, 남가주)

버지니아-메릴랜드 지역 68년 졸업 동기 소식



지난 10여년간 Virginia Maryland에 사는 68년졸업 9명의 동기들이 주동이 된 골프모임이 매주 월요일 혹은 화요일에 열린다. 신용계 대장 주광국 부대장 이 티타임을 위하여 수고한다

8월 24일에도 Twin Lakes Course에서 18홀을 끝내고 상록수 레스토랑에서 19홀을 하는 사진이다. 좌로부터 서윤석, 신용계, 주광국, 김주평, 김희주, 김철, 김영덕.

이날은 melanoma 치료와 비슷하게 앞으로 여러 cancer treatment에 서광이 비칠 Moderna 회사의 stock이 하루에 3배로 올라갔다면서 이것을 구입하였기에 환성을 올린 김영덕 교수가 한턱을 냈다.

가끔 채무원(65년 졸업) 님이나 고 오원환(61년 졸업) 동생 오영환 님이 참석한다. 정재성 김진홍은 이날 불참이다. 그리고 Haymarket Library에서는 매주마다 한 두 번씩 진창건(61), 고영희(63), 주광국(68),김희주(68) 동문들이 모여서 치매를 방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뇌운동을 한다. 이 도서관은 장소는 아주 조용하고 새로 몇년 전에 지은 건물이다. 작은 방들이 있어서 2시간씩 예약을 한다. - 글 서윤석

남가주 지역 71년 졸업 동기 소식



로스앤젤레스 근교에 사는 13명의 동기들이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만나 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번 모임은 9월 3일에 LA에서 20마일 남쪽, Buena Park에 위치한 Ralph Clark Regional Park에서 있었습니다. 12명의 동기와 마침 방문 중인 배성호 동문이 참여하여 자연을 만끽하며 즐거운 피크닉을 가졌습니다.

이날 참석한 동문들은 사진에서 빠진 김영철, 장문석 동문을 포함하여 앞줄 왼쪽부터 홍성진, 배성호, 김성환, 이희영 뒷줄 왼쪽부터 양주석, 이남수, 오상현, 이진영, 이종준, 이창우, 박상효, 김일영, 박진국 동문들입니다. - 박진국 보고

삼가 故人들의 冥福을 빕니다

손기용(61): 은퇴 후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시다 10월 5일 별세하셨습니다.
장태환(61): 뉴욕에서 마취과 전문의로 활동하시다 지난 10월 8일 별세하셨습니다.
선종칠(63): 뉴저지에서 거주하시다 지난 9월 12일 별세하셨습니다
전희근(64):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시다 지난 10월 17일 별세하셨습니다.
이경자(홍준호 '67 부인): 뉴욕에서 거주하시다 지난 9월 8일 별세하셨습니다.
송용재(69): 오하이오 주에 거주하시다 지난 10월 12일 별세하셨습니다.
박나현(Nah Hyun, 김중권 '69 부인): 플로리다에서 지난 10월 8일 별세하셨습니다
방준재(70): 뉴욕에서 거주하시다 지난 7월 11일 별세하셨습니다.

10문 10답 편집위원이 만난 동문

1. 미국에 언제 어떤 계기로 오셨나요? 돈은 얼마를 가지고 오셨나요?
2. 결혼에서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셨나요?
   가장 결혼생활 중에서 행복하셨을 때는?
3. 왜 의사가 되셨나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제일 중요한 의사가 되는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임상을 하셨나요 전공은? 연구를 하셨나요?
4.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었던 때는? 가장 보람이 있었던 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5. 의대 학창 시절이나, 중고등학교 시절이나, 국민(초등)학교 시절에 숨겨놓았던 나누고 싶은 좋은 경험담이나 숨은 이야기.
6. 다시 태어나서도 의사가 되시겠습니까?
   다른 선택이 있다면 어떤 분야에? 법관, 정치가, 사업가, 예술, 문학가.
7. 자녀를 양육하는데 후배들에게 참고가 될 사항이나 추천하고 싶으신 이야기? 필요하면 물론 자랑이 되어도 좋습니다.
8. 현재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시나요? 운동? 환자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의 현 의료시스템의 장 단점을 어떻게 보시나요?
9. 현재 무슨 취미생활을 하시나요? 혹시 종교활동을 하시나요?
10. 동창회와 시계탑 편집위원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피수영(67, MN) 동문



1.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소아과)를 마치고 군대에 갔다가 1975년 미국에 와서 처음부터 다시 트레이닝을 받고 Neonatologist로 Group에 join 하여서 일하고 있었는데(16년간) 서울아산병원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해서 서울로 나가서 일하면서 정년을 마쳤습니다. 그 후 하나로 의료재단(검진 센터)에서 고문으로 80세까지 일하다가 퇴직, 그러니까 서울 생활을 30년을 했네요.

서울에는 아는 사람도 많고 제자들도 많고 서울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아들 둘이 미국에 있어서 아무래도 아이들이 있는 데로 가는 게 좋겠다는 마누라의 의견으로 사실 두 번째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된 것입니다. 미니애폴리스에 콘도가 하나 있어서 일 년에 한두 달 미국에 오긴 했지만 너무 많이 변해서 지금 미국 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중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 온 것 같네요.

2. 마누라는 아버지 제자인데 제 고등학교 동창이 소개를 해서 만났고 특별히 행복한 예로는 저는 결혼은 37살에, 늦은 나이에 했습니다.

3. 서울대병원 소아과 과장 이국주 선생님이 아버지와 경기고등학교 동창이신데 제가 아플 때마다 부모님이 이국주 선생님께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참 근엄하시고 존경스러워 나도 이 선생님 같은 의사가 되었으면 하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인턴으로 남았는데 이국주 선생께서 가끔 저를 부르셔서 "피 군! 소아과를 해보지" 하시면서 계속 권하시어 소아과를 하게 되었고, 미국에 와서는 소아과 레지던트를 마치고 소아 Cardiology를 해 볼까 하고 있는 중에 제가 존경하는 홍창의 선생님께서 보스턴에 오셨다기에 만나 뵈러 갔는데 본인에게 앞으로 Subspecialty를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으셔서 Cardiology를 할까 한다고 하니까 서울에는 Pediatric Cardiologist가 너무 많고 Neonatology Field가 황무지이니까 그것을 하고 서울로 나오라고 하시어 Neonatology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Google에 들어가시면 한국에서 제가 이룩한 Neonatology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4. 밤을 새우고 치료를 했는데도 환자가 좋아지지 않을 때 힘들었고 아주 작은 아기가 Complication 없이 정상아로 퇴원할 때 가장 기뻤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5. 서울에서 골프를 많이 했는데 여기 와서 한영수와 몇 번 치고 나서 어깨가 안 좋고 왼쪽 골반이 안 좋아서 골프를 못치고 요즈음은 지팡이를 짚고 저녁마다 집 주위를 걷는 게 전부입니다.

서울에서 담배를 안 피우는 학생이 있었나요? 우리 학생 시절 그 당시에 저도 피웠죠.

9. 종교는 가톨릭인데 이곳엔 성당이 아주 멀고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못 나가고 있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것은 아니고 해서… 작가 최인호가 제 대부인데..

10. 수고 많이 하십니다.

윤효윤(69, MI) 동문



1. 미국에는 1971년 봄에 왔습니다. Internship을 구하기 전에 이 미국이라는 세상구경을 좀 해보고 싶어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한국에서는 보지 못하던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보지 못하던 피자, 햄버거를 거의 매일 즐겨 먹으면서 호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도 떨어져가고, Job을 구해 인턴십을 시작해야 한다는 절박감에 여러 병원에 인터뷰를 신청했습니다. 서투른 영어였고 차도 없는 형편이었지만 뉴욕은 지하철을 타고 아무 병원이나 갈 수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몇 주 후에 한 뉴욕 병원에서 인턴십 offer를 받았습니다.

의과대학졸업 후 대학병원에서 내과 레지던트 생활을 하며 항상 느꼈던 것은, 당시 우리 서울의대에도 훌륭하고 유능한 교수님도 많이 계셨지요. 저도 민병철 교수님, 한용철 교수님과 같은 길을 택해 미국이라는 큰 세상에서 의료 트레이닝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참으로 인상적이었고 많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2. 저의 집사람 가족과 제 부모님은 예전부터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기에 부모님의 소개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몇 년 사귄 뒤에 한국에서 약혼식을 올리고 저만 먼저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왔습니다. 집사람은 그때 서울음대를 졸업하고서 미국으로 오기로 되어 있어서 8-9개월 동안 아파트에서 혼자 살며 약혼녀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격일로 병원에서 당직을 해야 하는 인턴 생활이 있었기에 그런대로 견뎌낸 것 같습니다. 드디어 약혼녀를 미국에서 다시 만나고 며칠 후 1971년 12월 26일 흰 눈이 내리는 날 플러싱에 있는 Whitechapel Church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장식 속에서 식을 올리고 Puerto Rico로 신혼여행을 했던 그 많은 추억은 참 행복한 꿈과 같은 때였습니다.

또 몇 년 후 우리 두 아들이 태어나고 건강히 자라서 자기들의 할 일을 열심히 잘 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지금은 훌륭한 의사와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으니 자랑스럽기도 하고 부모로서 행복합니다. 특히 큰 아이는 Ivy 리그 메디칼 스쿨 두 군데서 떨어졌을 때 무척 실망스러웠지만 몇 주 후에 다른 두 메디칼 스쿨에서 합격 통지를 받아서 무척 기뻐서 서로 부둥켜안고 소리치며 울던 그때도 참 행복했습니다. 슬픔이 행복을 불러일으켰다고 하지요.

김희주(68, VA) 동문



1. 1972년 7월 10일 하와이와 LA를 거쳐 디트로이트로 왔고, 수중에 400불을 가지고 온 것으로 기억한다.

2. 지인의 소개로 지금 아내를 소개받았다. 이화여대를 갓 졸업한 풋풋한 머리긴 예쁜 처녀였다. 결혼을 해야만 미국으로 보내주겠다는 식구들의 성화에 4개월 후에 서둘러서 했고 결혼 동기 고남규가 있다. 같이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했다. 참 오래된 이야기이다. 결혼생활 중에 제일 행복한 때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나는 지금 현재라고 생각한다.

내 생애에 여러 번 고비가 있었다. 2008년 졸업 40주년 일본 여행 중에 갑작스러운 TIA로 힘들었고 그때 여러 동기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큰일이 없이 회복되고 왼쪽 Carotid Endarterectomy를 했다. 두 번 허리 Back Surgery를 했고 2023년에는 예기치 못한 방광암에 걸려서 좀 힘들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여러 번의 시련 중에 아내의 꾸준한 내조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수많은 의사 대면과 테스트, 병원생활, 항암치료, 수술을 거쳐왔다. 그동안 한 번도 불평 없이 꾸준하게 나를 보살펴준 아내가 정말 고맙다. 바로 그 지극한 보살핌을 받고 있는 지금이 나에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닐까?

3. 의사가 된 특별한 이유는 없다. 단지 내 조부께서 한의사로 시골에서 여러 환자들을 돌보는 것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의사를 꿈꾸지 않았을까? 의사가 되는 조건? 글쎄 마음가짐이랄까. 환자를 보는 따뜻한 마음.

나의 전공은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4. 아무래도 처음 인턴생활을 할 때 언어 문제로 attending doctors and nurses와의 의사소통이 힘들었을 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솔직히 말해서 없다. 철학적인 것, 물질적인 것 등등 나는 그냥 정신없이 살아왔다. 요즈음에는 모든 것에 감사한다. 현재의 삶을 고맙게 생각한다.

5. 학창 시절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난 정말 재미없고 특별히 말할 것이 없다. 늙어가시는 할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등록금, 생활비를 허투루 쓸 수 없어서 절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참, 나의 아버지는 내가 6살 때 돌아가시고 나는 할아버지 밑에서 쭉 커왔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분께서 날 자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효도였으니까.

6. 다시 의사가 되겠다. 다른 것은 내 성격에 맞지 않고.

7. 나 자신이 바쁘다는 핑계로 나는 아들들과 대화를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애들이 잘 성장하여 주어서 고맙게 생각한다. 미국의 현 진료 시스템에 대하여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생략한다.

8. 요즈음은 근력운동에 주력하고 있다. 힘든 항암 수술 등을 거치면서 근육이 많이 빠졌다. 현상 유지를 하는 데도 힘이 든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동기들과 골프를 친다.

담배는 1976년에 끊었다. 의사로서 당연히 그래야 되기 때문이었다.

9. 나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신통치 않다. 아내와 같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웃고 울고 가끔 친구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골프 치고, 내 체력의 한계에서 즐기려고 노력한다. 감사하자.

10. 편집위원께! 정말 힘든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존경합니다. 계속 계속해 주세요.

3. 저는 사업가와 의사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업을 하시던 아버님이 병이 생기고 위출혈 때문에 위 수술을 두 번 하시고 해서, 저희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절대로 사업가가 되지 말고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의사가 되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 직업이니 남의 생명을 내 생명 다루듯이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항상 최대의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전공분야는 심장내과였으며 연구생활을 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클리브랜드에서 Fellowship training을 받았을 때 Co-author로 간단한 article들을 썼을 뿐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주로 연구생활을 했어도 재미있고 보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4.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여러 조치와 치료를 해도 아무런 성과가 없이 임종하는 환자를 볼 때, 그때보다 더 힘들고 허무한 때가 없었지요. 반대로 중환자들이 나의 의술로 다시 소생하듯이 제 발로 걸어서 퇴원할 수 있었을 때 그 이상 보람이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자신에 충실하며 허위나 위선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에 충실하지 않으면 남의 삶을 살려고 하게 되고 거짓, 위선, 과장이 차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기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을 느끼고 살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5. 의과대학에 다닐 때 어느 날 우연히 관람한 연극반 공연 "Ah, Wilderness"에서 연기하시던 선배 의사님들을 보고 나도 연극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연극반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선배 의사들이 Cast만 하는 줄 알았는데 영어로 된 Play를 직접 번역하고 각본을 만들고 공연 연습도 심혈을 기울이는 것들을 보고 자극도 자극이지만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본과에 들어가서 저에게 역이 주어져서 단성사 무대, 실험극장 무대에서 A hartful of rain, An Ideal husband, The wild duck 등등에서 조연도 하고 주연도 하여 내 나름대로 열심히 연기를 하면서 관중들과 함께 호흡하고 대화를 나누는 기분, 또 연극이 끝나고 막이 내리면 들려오던 뜨거운 박수소리, 격려의 소리, 또 무엇보다도 몇 번의〈다음면에 계속〉

2026-2027년도 미주교포 장학생 13명 선발

서울의대북미주동창회는 2026~2027년도 미주교포 장학생 13명을 선발하였다. 장학위원회는 지난 10월 2일 회의를 열고 지원자 26명의 학업성적, 진로, 가정형편 및 지역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정하였으며, 선발 결과는 이사회에서 승인되었다.

김태웅(63) 장학금: 손세라(공중보건, 캘리포니아), 신윤호(의학, 버지니아)

차재철(68) 장학금: 이하은(의학, 일리노이)

故 김승삼(68) · 김형난 여사 장학금:

강에이든(역사 · 인문학, 버지니아), 김지윤(디자인 · 공학, 워싱턴주)

김일영(71) 장학금: 백시연(의학, 플로리다), 황순명(의학, 뉴욕), 정태인(컴퓨터과학, 일리노이), 서나영(영문학, 워싱턴 D.C.)

故 조세진(71) · 조영 여사 장학금: 권선정(치의학, 뉴욕), 김진(산업 · 노사관계학, 뉴욕), 김민주(신경과학, 뉴욕), 이현서(간호학, 메릴랜드)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후원해 주신 동문과 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장학생들의 감사편지들 중 한글과 영문으로 감사의 글을 보내온 서나영(영문학) 학생의 글을 제7면에 소개한다.

2026년도 Green Project 장학생 미국 실습 성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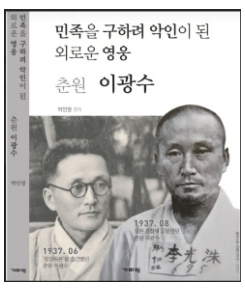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의 2026년도 Green Project 장학생 5명이 미국에서의 실습을 모두 마치고 보고서를 제출했다. 서울의대 4학년 학생 9명 중 선발된 장학생들에게는 각 $2,000의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권혜윤 학생 Columbia University Irving Medical Center, 두장호 학생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and Health Sciences, 양혜림 학생 Weill Cornell Medical Center에서 실습했다. 오현지 학생과 이원준 학생은 Univiversity of Utah의 Spencer Fox Eccles School of Medicine에서 실습했다.

이번 장학금은 진홍우(62) 장학기금과 故 장세곤(63) 장학기금의 후원으로 마련되었다. 진홍우 장학기금은 권혜윤 · 두장호 · 양혜림 학생을, 故 장세곤 장학기금은 오현지, 이원준 학생을 지원했다. 후배들이 미국에서 배움과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장학기금을 후원해 주신 진홍우 동문과 故 장세곤 동문의 뜻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번 호에는 두장호 학생과 오현지 학생이 보내온 감사편지를 제7면에 소개한다.

책/소/개

박인영(75) 춘원 이광수에 관학 서적 발간



박인영(75) 동문이 〈민족을 구하려 악인이 된 외로운 영웅 춘원 이광수〉를 도서출판 '기파랑'를 통하여 지난 7월 1일 발간했다.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살다가 은퇴하여 지난 7년간 가슴 속에 품고 키워온 소중한 아기와도 같은 이 책을 세상으로 내보낸다고 말했다. 표지 소개란에 "인류의 지성이란 두 상반된 생각을 동시에 품고도 기능을 해내는 능력이다." 저자는 이 문장을 빌려 이광수라는 거대한 다연성을 정면으로 응시한다.

이 책은 이광수를 찬양하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가 누리는 문화와 언어의 토대를 닦은 인물에 대하여 마땅히 잦추어야 할 '최소한의 예의를' 묻는 기록이다. 그 이름 뒤에 숨겨진 거대한 채무를 확인하는 순간, 당신은 한국의 근대사를 바라보는 전혀 새로운 눈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저자는 쓰라렸던 우리나라 근대역사를 돌이켜보고 그 당시에 쓰여진 춘원의 작품들의 발간 장소와 시간을 함께 분석하였다. 친일행적이라고 증거되는 모든 연설과 출판물을 쓰게된 동기에 대하여도 연구분석하였다. 그후 해방 후 친공, 반공 등 비극적인 극단적 사상의 대립과 근래에는 논란이 끝나지 않는 친일파 인명사전을 쓰게된 인물들에 대한 분석, 또 그들이 던진 춘원에 대한 비판에 대한 배경을 분석하였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 변신을 거듭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충신에서 매국을 하게 된 이완용, 일제강점기에 외국인 선교사들을 추방한 후 여자 대학을 지켜낸 김활란 총장, 민족의 지성 김성수 총장, 병자호란의 인조시대 때 최명길 등 역사적 인물들을 열거하여 비교하였다. 정신적으로 따르던 도산 안창호를 보내고 난 후 세계 정세의 변화와 춘원의 변화된 행적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춘원 이광수는 현대소설 '무정'을 쓰고 수많은 저서로 현대문학을 발전시켰으며 1919년 2월 9일 일본에서 독립선언문을 초안한 역사적 인물이다. 그가 독립가로서 활동하다가 수양동지회 동료들을 살리기 위하여, 뿐만아니라 시행 날짜가 1945년 8월 17일로 정해진 더 큰 3만여명의 민족적인 살생을 막기 위하여 희생적으로 택한 춘원의 친일 행적과 문헌에 대하여 연구했다. 결론은 일부 인사들에 의하여 전후상황을 무시하고 이 외로운 영웅을 무조건 나쁘게만 평가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설명한다.

수 년 전에 〈이광수를 위한 변명〉 이라는 책을 정신과 전문의사 입장에서 고 이중오(64) 님이 출간했었지만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쓰여진 내용이다. 편견을 버린 지성인이면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는 책이라 소개한다. - 글; 서윤석

나두섭(73) 시인 제8회 윤동주문학상에서 대상 수상

연세대학교 미주동문회가 주관하는 제8회 윤동주 문학상에서(2026년 8월 9일) 나두섭 시인이 대상을 받았다.

심사평에서 '윤동주 정신을 오늘의 언어로 계승한 작품' 나두섭 시인의 '이몸이 새라면'은 새라는 존재를 통해 말하지 못한 사랑, 함께 울어주는 연민, 자연의 아름다움, 사랑의 기쁨을 차례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절제된 언어 속에서도 넓은 감정의 여백을 담아내며, 담백한 문장과 직설적 고백, 자연 이미지가 조화된 시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시의 핵심은 '내가 새라면'이라는 가정 자체가 아니라, 새가 되어야만 비로서 말할 수 있는 마음의 진실이다.

시인은 새라는 형상을 빌려서 인간의 언어로는 온전히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순수하게 드러낸다. 특히 결말부의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건 좋아하는 얼굴을 대할 때"라는 구절은 시 전체의 정서적 밀도를 밝게 끌어올리며, 자연도 자유도 아닌 사람, 즉 사랑하는 존재가 시적 귀결임을 분명히 한다.

나두섭 시인의 작품은 윤동주 시인의 정신을 오늘의 언어로 자연스럽게 계승한 시로 평가되며, 심사위원단 만장일치로 대상을 수여하게 되었다.

심사위원;

백순 박사(심사위원장/문학평론가),

서윤석, 노세웅, 박창모 문학상위원장

이몸이 새라면

나는 알아요
내가 새라면 어디부터 갈까 하는 걸

엄마한테 부터 가야지요
그땐 말하겠어요 "엄마 사랑 했어요. 말은 못했지만."

그리곤 사랑하는 사람들 찾아 가야지요
그리고 사랑의 메시지 전하렵니다

어려운 사람들도 만나렵니다
힘든 거 알아요 우리 같이 울어요

솟아오르는 붉은 태양
바다에 떨어지는 낙조도 보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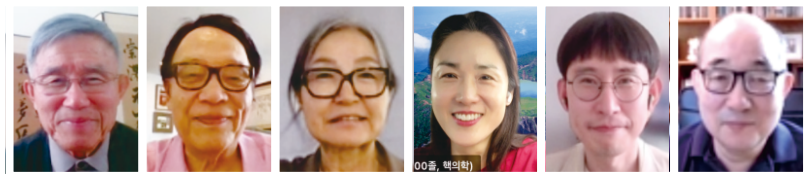
호수도 강물도 작은 개울도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줄 몰랐네요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건
좋아하는 얼굴을 대할 때 랍니다

그리고 두 마음이 함께 할 때
나는 종달새보다 즐겁습니다



시계탑 10월호 편집회 초록



2026년 10월 10일 동부시간 오후 1시에 Zoom으로열렸다.

참석인원은 서량, 서귀숙, 서윤석, 박은경, 황창근 사장, 곽귀병 사무장 그리고 방금 한국에서 돌아온 미리 양해를 구한 노영일 위원이다.

개회에 이어서 서울에서 발간되는 동창회 주소록에 대한 사항, 근래에 부족한 원고에 대한 대책을 의논했다. 그동안 서귀숙 편집위원이 오랫동안 시계탑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해왔는데 1월 호부터는 편집위원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 동창회 일로 다른 중책으로 계속 봉사하겠지만 모두들 깊은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박은경 위원이 근래에 UCLA로 자리를 옮긴 탓으로 이번 호의 젊은 대담 시리즈는 생략한다.

이번 미주교포 장학금 수상자가 결정되었다. 이익재, 강종민 등 여러 장학위원들이 숙고하여 26명의 많은 지원자 중에서13명을 선정했다. 대부분이 의학과 관련된 학생들이지만 특이하게 영문학 등 인문학을 전공하는 교포 학생도 선정하였다. 한,영으로 이 학생이 보내온 감사편지를 이번 호에 싣는다. 시계탑을 통하여 기부자와 수혜자가 소통되어 이런 아름다운 장학사업이 동포 사회에 계속 빛을 발하기 바란다. 기쁜 소식으로는 나두섭 편집위원이 연세대학교 동창회와 미주 윤동주문학회가 수여하는 제8회 미주 윤동주문학상의 대상을 받게 되어서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지난 호에서 잘못 표기된 노경자, 김태웅(67)-김정화 장학금을 바로잡는 것과 김규호 님의 긴 원고를 수정하느라고 수고한 박은경 동문의 설명과 앞으로의 대책을 의논했다. 이어서 원고 검토와 부족한 점을 서로 더 토의한 후 회의를 마쳤다.1월 호 편집회는 2027년 1월 9일 토요일 예정되었다. -사진; 편집위원 박은경, 글: 편집장 서윤석

〈전면에서 계속〉 공연을 하기 위하여 수많은 rehearsal을 하며 쏟아낸 노력과 정성이 공연 후에 가져다주는 허무한 마음, 또 그와 함께 오는 행복감, 만족감이 다음 공연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참으로 그때가 그리워지며 그때는 철없이 살았지만 바로 행복한 시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6. 다시 태어나도 의사가 될지 다른 직업을 택할지는 잘 알 수 없네요. 많은 variable이 있을 테니까요. 또 지금과 같이 사람들의 가치 관념, 도덕관념이 많이 바뀌었고 온 세상이 더욱 혼잡해지는 것을 보면 법관이나 정치가로 태어나도 좋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7. 자녀들이나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첫째로 자기의 약점을 고치는데에 너무 노력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강점을 터득하여 그 강점을 잘 이용할 줄 알라. 둘째로 어두운 곳에 나 있는 나무나 풀들은 잘 자라지 못하고 빨리 시들어지듯이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항상 맑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여 밝은 마음을 갖고 살면 희망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미국 진료 시스템에 많은 허점과 약점이 있다는 것은 다 인지하는 사실입니다. Hospital, Drug, Doctors charge들이 높아서 미국의 Health care cost per person이 developed Country 중에서 제일 높은데 Health care outcome은 아주 나쁜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의술이 제일 월등한 곳이 미국이지만 진료 시스템의 혜택을 받는 것도 빈부차와 평행한다는 것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8. 과격한 운동을 피하고 treadmill exercise를 일주일에 2-3번 합니다. 겨울철에는 좀 따뜻한 지방의 해변가로 자주 갔고 집에 오면 treadmill하고 stretch exercise를 하며 지냅니다.

소식하고 체중관리하는 것은 건강 유지의 비결이지요. 한국에서 의대 시절에 담배를 피우다 보니 20년을 피웠는데 끊은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9. 종교생활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Pagan(무종교)는 아니고 그저 조용히 마음속으로 신을 믿으며 우주의 오묘함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노래 부르기, 노래 듣기를 좋아했으며 Play들도 좀 읽었으며 특별히 어떤 취미생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즈음은 정기적으로 골프도 치고 가끔 영시도 쓰고 종종 여행을 다니는 것이 일종의 취미라 할까요.

10, 우수한 편집위원들이 수고하시기에 유익하고 알찬 시계탑이 정기적으로 발행되니 참 다행입니다. 편집장님과 편집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리옵고 시계탑이 오래오래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로잡습니다

지난 호 제3면의 김태웅(63)-김정화 장학금을 김태웅(67)-김정화 장학금으로, 제10면 홍수와 저수지 이야기의 저자 김경자를 노경자(61, 진창건 동문 부인)으로 바로잡습니다.

美癡 孫基勇(61) 고인을 추모하며

나의 '롤모델' 美癡~ 당신은 드디어 영원한 愛人 '쫑'을 찾아 떠났구려



내가 며칠 전에 당신의 영면 소식을 듣고 즉시 떠오른 것은 "원앙처럼 평생을 아기자기 사랑하며 정겹게 지내던 부부는 한 해를 버티지 못하고 뒤따라 간다"는 통념을 실행했구나 하는 생각이었소.

돌아보니 우리가 처음으로 만난 예과 시절, 당신은 소수 그룹 출신이면서도 다양한 재능과 의욕을 바탕으로 '영문소설 읽기 그룹'이며 '야구, 배구 등의 짬짬이 운동 그룹'에 빠짐없이 끼어 활동하면서 학급 동료들과의 친교를 넓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거기에 반해 당신에게 접근했던 게 인연이 되었지. 내가 2학년 여름방학을 앞두고 '충남 무전여행'을 꾸며 함께 하자고 권유했을 때 당신이 흔쾌히 응해 주었던 기억이 나시는가?

그 여행에서 계룡산 甲寺 뒤 계곡의 폭포 앞에서 雲影(朴勝均 61) 포함 세 벌거숭이가 목욕하던 장면을 자동 샷터로 찍은 사진은 우리가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보물이 아니던가? 나는 그때부터 당신이 그렇게 성실하고 부드럽고 우애 깊은 친구라는 것을 알았고 나도 모르게 흉내 내고 따라 하는 버릇이 생겼던 것 같소.

이제 우리의 인연과 友情을 키우며 교유하던 때를 회상해 보세.

먼저 당신의 영원한 愛人 '쫑' (나중의 Mrs 손) 말일세. 당신의 근무 현장에서 만난 후배 의사 '쫑'과의 情이 깊어지고 당신의 도미 계획이 임박해 가고 있을 때, 요절하신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해 온 형님을 찾아 가 둘의 결합을 성사시키는데 한몫을 한 雲影과 나는 그간 당신으로부터 받은 정을 조금 갚은 느낌이었고, 더구나 이후의 당신 부부의 평생의 행적은 주위 많은 이들에게 귀감으로 남게 되었지.

당신과 '쫑'간의 사랑의 척도를 나는 말로는 다 표현할 자신이 없어 불의의 불치병으로 앞서 세상을 떠난 '쫑'이 남겨 두고 갈 수 밖에 없었던 애끓는 정을 읊은 [사랑 노래] (필자가 붙인 제목) '자기 이름 三段詩'를 여기 옮겨 불러보세.

[사랑 노래] 손(이) 종 숙

* [손]수 택한 길이었다. 사람들은 막다른 길이라고 하였지만 나는 지금 하늘 나비가 되어 자유로이 날고 있다. 나에게 남은 불편함은 나를 감싸고 두른 고치와 같지만 내가 사랑해 온 이의 이 실타래는 차마 풀 수가 없구나.

* [종]종 다가오는 통증과 마지막이라는 두려움이 느껴지는 순간에도 나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하나님의 딸로서 내가 선택한 이 길에 후회하지 않게 하소서. 하여 주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으며 나의 마지막 숨을 쉰다.

*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하늘 나비가 되어 날고 있었다. 몸은 쇠약해져도 마음과 영혼은 자유로웠다. 이제 나는 하늘을 자유롭게 난다. 아! 평생 누린 그 사랑, 그 사랑만이 남기를...

[注] 떠나는 이가 부른 사랑 노래가 향기롭다. 나도 장차 이렇게 주거나 받을 수 있을까? (제15회 동기회의 '졸업 65주년 기념문집'에서, 옮긴이의 注書 일부)

[美癡(미치)] 雅號를 헌정한 얘기를 해보세.

아마 20년쯤 전 얘기일 거야. 당신이 오랜만에 방한한 기회에 내가 新安 앞바다와 木浦를 관광 안내한 적이 있고 이때 목포의 해안에 있는 南農美術館엘 들렸었지. 거기서 小癡 許鍊(1808-1893, 珍島人)의 소나무 그림을 보고 흐뭇해 하고, 작가의 雅號가 중국 元 末의 유명한 南宗□家 黃公望의 아호 大癡道人에서 繼代되었다는 말에 솔깃하면서 그 '치(癡,어리석을 치) 字'가 마음에 든다고 하길래 그럼 당신도 "그 '癡'자 돌림으로 호를 하나 지어 줄가?"하니 기다렸다는 듯이 좋아하였지. 당신이 미국으로 돌아간 뒤에 내가 당신에게 '미치(美癡)'의 아호를 헌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獻呈詩를 지어 바친 일을 기억하리라.

美癡 孫基勇 [아름다운 바보, 美國에 사는 마니아 손기용]
中原黃大癡 (中原의 元나라에는 黃大癡가 있고)
海東許小癡 (海東의 韓半島에는 許小癡가 있는데)
洋外孫美癡 (大洋 밖 美國 땅에는 孫美癡가 있으니)
三癡未致狂 (세 바보가 거의 모두 미치광이구나)

우리는 동기생 세 쌍이 두 주일 동안 프랑스 일원을 섭렵한 적도 있지. 미국에서 당신과 오원환 군 부부 그리고 한국에서 우리 부부였지. 각자가 자기 집에서 떠나 파리에서 합류했지.

처음 한주는 파리와 그 근교 그리고 다음 한주는 북프랑스와 남프랑스 순렵이었지.

처음 주간의 파리 시내 관광 중에 뽕삐두센터 현대미술관에 갔을 때 일행 중 한 사람이 '여기 한국출신 김창열 화백의 〈물방울〉작품이 있다'는 정보를 꺼내자 일행이 일제히 나서서 온 전시실을 훑었지만 찾지 못하고 결국 안내 데스크에서 교체 전시 중이라 지금은 볼 수 없다는 말만 듣고 돌아섰던 기억도 나리라.

북부 지베르니의 '모네의 집'수련 연못과 박물관 전시실, 몽 미쉘 수도원, 보르도의 포도밭과 쌩떼밀리옹 마을 풍경, 아비뇽의 구 교황청 모습이 눈에 선하게 떠오르지 않는가? 그리고 남부 여행 중에 묵은 민박집에서의 크로와쌍 빵과 홈메이드 와인은 어떤가? 우리는 그때 말했지. 우리 한번 다시 와서 그땐 민박만으로 일정을 잡아 보자고~

나는 당신과 어울렸던 이런 여행이 유난히 눈에 서~언한데 그건 여행 때마다 당신이 미리 해박하게 준비해 온 지식과 정보가 일행 모두를 매혹하게 해서 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네. 그런 경우는 수도 없이 많았고 특히 미국의 여러 국립공원들을 순회하는 여행에서 두드러졌다고 기억하네. 인디안의 옛 삶터에서 그들의 역사를 설명해 주고 그들의 조상이 남김 암각화(岩刻□, 바위에 새긴 그림, petroglyph)를 해설해 주던 기억이 생생하네. 그뿐인가? 유럽 여행에서 자주 만나는 성당과 각종 유물 그리고 가는데 마다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그 건축양식이며 조각품들의 의미를 그리스 로마의 신화로 풀어주는 모습은 실로 경이로웠지.

이런 모습들의 집합이 당신의 본상이요 정체성이라면 내가 당신을 나의 롤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살아온 나의 한평생도 결코 손해는 없었다고 자부하겠네. 당신은 필시 천국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당신의 영원한 愛人과 해후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것으로 믿네. 당신이 진정 나의 롤모델이라면 나도 곧 그리로 갈 수 있게 인도해 주기 바라네. (26.10.11.) - 심영보(61, 서울)

고 손기용(61) 동문 자제의 조사

Offering an overall perspective to his life

The world of today is clouded by those who speak of their own great accomplishments. Physical greatness. Mental prowess. Business acumen. The overcoming of great adversity. It seems that this type of self-promotion is the way many see as the path to success, to admiration, to respect. My father did not subscribe to such rhetoric. He obtained success, admiration, and respect with his actions, his nature. He was an example of wisdom, courage, justice, and temperance. None of this was muddled in complex messaging or boastful pride. He often told my sister and I that he chose rural life in Ohio for his family over the glamor of major metropolitan cities. Why? Because it offered a reflection of his childhood in Korea. Four seasons. Access to nature. A tight knit community. In the past, I did not understand this decision. "Why not money, glamor and fame?" I learned over time that rural life allowed us an environment where we dealt with different personalities and situations. We had no coverage to run to one single mindset or ideology, thereby allowing my sister and I to broaden our perspective. He reminded us to treat all people equally. To be a good person. He did it for his kids. I often thought that since I grew taller than my father, I was athletically superior, but this was not the case. His ability would be put on display as he would dribble a soccer ball around my flailing defensive attempts. He would confound every shot in ping pong and tennis with a lob return until I ultimately tire out. His golf shot would not achieve distance, but consistency found the fairway, the green, and low scores, earning him the nickname "The Machine" among his golf partners. He never spoke of his abilities in sport. He only put on the display of learning, mastering, and succeeding. His treatment of his staff when he started his medical group is how I learned to treat others: with respect and understanding, from those in the lowest position to the highest. A common respect. While I could not match his voracious appetite for knowledge and history, it was the benchmark for my career. Learn from those before me. Study hard. Work hard. To be a great man and yet not boast of being that great man was the heart of my father. This mindset took many years for me to understand, and yet his greatest strength beyond his successes...was his patience. My childhood was not one that mirrored his. While he fought for every ounce of happiness as a child, my parents spoiled us to no end. He adapted his upbringing as a child to one that was accepted in the United States. With my mother by his side, my father was the epicenter of information, planning, teaching, and growing. He was the patriarch of our extended family, aiding and teaching countless cousins, aunts, and uncles. According to my father, sometimes at great peril. A relative of ours was not an exemplary driver, and it took several lessons before my father did not fear or his life.He was an example of quiet confidence and strength. It is true, life ends. But love continues, as does the teachings and example my father set for his family. I will miss him greatly and do my best to abide by his example.

Albert Sohn, son of Dr. Ki-Yong Sohn (61)

고 장태환(61) 동문 자제의 조사



"The Best"

Our father, Tai Hwan Chang, always strove to live "the best" life and to give the best of himself to everyone he loved.

After graduating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the Class of 1961, Dad traveled by boat to the United States to begin his medical internship. His first stop was Fargo, North Dakota! Although his English was limited, he excelled and transferred to New York University Medical Center - Bellevue Hospital for his anesthesiology residency, where he was named chief resident. He passed all his medical boards in his second language on his first attempt. In 1967, he met our mother in Philadelphia, where she was pursuing her master's degree, and they married two years later. After he completed his medical training in Brooklyn, Mom and Dad moved in 1974 to the home in Roslyn, Long Island, where we grew up. The house stretched their budget, but Dad believed it was a wonderful place to raise us, with the best schools. His first position after residency was at Glen Cove Community Hospital (now known as Glen Cove Hospital - Northwell Health), where he worked for 25 years until his retirement and served for several years as chief of the anesthesiology department. A highlight of his career came in the early 1980s, when he visited Beijing as part of a diplomatic exchang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focused on advancing surgical practices. He was selected to join a small delegation of anesthesiologists from New York, an honor that reflected the skill, dedication, and distinction he brought to his profession.

Dad had many interests, but architecture held a special place in his heart. He often told us that he had wanted to become an architect as a child, but his father encouraged him to pursue the greater stability of medicine. After 17 years in Roslyn, Dad set his sights on a vacant property farther east in Locust Valley, New York. He bought the land and spent the next several years pouring his heart and soul into building his dream home. He carried the architectural plans with him everywhere and involved himself in every structural detail. He chose every doorknob, light fixture, and tile. He even selected the granite flooring and laid out the tiles on our old basement floor to ensure that the patterns flowed together beautifully.

Our father also loved to travel. When we were young, he told us, "When you work, you need to plan your vacations so that you have something to look forward to." Our parents took us on extraordinary trips, and together we explored wonderful places both within the United States and around the world. Dad's deep curiosity and love of learning shaped every journey. Our vacations were carefully planned and packed with things to see. He was always the first of our family of four to wake, eager to begin the day's sightseeing. He would shower, drink his coffee, and read the newspaper while we slept. When he could wait no longer, he would throw open the hotel curtains and flood the room with light, much to our dismay. When we were older, he sometimes resorted to telling us it was already 9:00 a.m., sending us leaping out of bed, only for us to discover that it was actually 7:30. Dad always sat near the front so he would not miss a word from the guide, and he asked a million questions, much to our embarrassment. He bought souvenir books about the history we had just learned so he could explore it more deeply later. He also loved capturing our travels on camera. As soon as we returned home, he would take his rolls of film to the photo shop, then eagerly arrange the prints in our family albums. Before long, he would begin planning the next adventure. After we were grown, Mom and Dad continued exploring the world together. One of their last trips together was to the Amalfi Coast to celebrate Dad's 70th birthday.

Dad also loved and appreciated nature's beauty. He chose homes with ocean views and took tremendous pride in their landscaping. At the house he built in Locust Valley, he personally selected every tree and shrub. He loved one Japanese maple so much that he had it uprooted and moved to the front of Mom and Dad's home in Glen Cove, where it still thrives outside his study window. a living reminder of the beauty he cultivated and cherished.

Our father also had a passion for good food. He was a foodie before the word became popular, and he loved taking us out to eat. Although he had his favorite restaurants, he was always eager to try somewhere new. He would ask the waiter, "What is your specialty?" because he wanted to experience the very best, whether that meant escargot

고 이경자 박사를 (Mrs. 홍준호, 67) 추모하며



고인께서는 2026년 9월 8일 83세에 영면 하셨습니다. 폐암 진단을 받으시고 2년이 넘도록 투병을 하시며 일시 회복하시는듯 하였으나 끝내 건강을 못 찾으셨습니다.

고인께서는 1943년 3월 10일 서울에서 4남매 중 셋째 딸로 태어나셨습니다. 창신국민학교, 경기 여자 중-고등 학교를 거쳐서 1967년에 이화 의과대학을 졸업하실 때까지 항상 최우수 학생의 자리를 지켜 왔습니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외부 의대 졸업생으로는 극히 어려운 서울 대학병원 인턴으로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선정되었다는 쾌거입니다.

이 시작이 고인의 생애에 두 개의 큰 길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고인이 5년 동안의 수련을 통하여 저명한 내과 전문의가 되셨고, 둘째는 당시 훌륭한 홍준호 외과 의사를 배필로 만나서 1969년에 이루어진 결혼식 이였다고 생각합니다.

1974년, 도미하시기 직전 2년 동안 이화의대에서 내과 전임 강사로 재직했습니다. 도미 이후 5년(1974~79) 동안 Brooklyn Hospital에서 혈액 종양학 수련을 받으셨습니다. 그 후 New Hyde Park에 위치한 Parker Jewish Institute에서 오랫동안 저명한 의사로서 인술을 베푸시고 2006년에 은퇴하셨습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고인과 저의 가족은 서로 도우며 형제처럼 행복하게 지내왔습니다. 애들도 같은 나이였습니다. 저는 고인의 환자로서 너무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오랫 동안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해 오던 저를 기적처럼 고쳐 주셨고 지속적으로 돌보아 주셔서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고인께서는 제 담당 의사이시면서 친정 언니처럼 제가 항상 의지해오던 너무 고마운 분이였습니다.

어느날 뜻밖에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놀랬지만 곧 회복되실 것이라고 확신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황망히 가시고 보니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Pine Lawn 묘지에서 거행된 하관식을 기억합니다.

유난히도 화창스런 초가을 날씨였습니다. 그날 땅 위에 두 무릎을 꿇고 꽃으로 장식된 아내의 관을 어루 만지며 통곡하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 했어", "정말 당신을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목이 메인 Dr. Hong 이었습니다. 이어서 푸른 가을 하늘을 뒤로하며, 땅속으로 서서이 내려지는 고인의 관을 지켜 보며 저는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습니다

이제는 가족들의 얼굴에 미소와 생기가 살아남을 보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고인께서 밤하늘에 빛나는 고운 별처럼 평화로운 하늘나라에 가셔서 잘 모셔진 것을 가족들이 분명히 확인하였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좋은 곳에서 명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Oct. 10, 2026 김태라 올림 (Mrs. 김용재, 66)

유가족: 남편 홍준호 / 두 따님과 가족: Christine & Michael, Ruby and Lola JoAnn & Jeptha, Theo, Garrett and Natalie

60년 전 사진 속 용재를 보내며



좌부터 김정환, 고 송용재, 박정범, 김병오

눈이 아프도록 들여다보아도 사진 속 우리는 말이 없다. 너무도 풋풋했던 그 시절이사무치게 그리워 눈물이 핑 돈다. 그의 집을 돌아 나와, 제물포 앞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저 언덕에서 '찰칵' 하던 그 순간, 우리의 청춘은 영원히 그곳에 멈추어 서 있다.

해쓱한 얼굴들을 보니, 아마도 본과 1학년 학기말 시험을 마치고 저마다 긴 안도 한숨을 내쉬던, 초록이 물든 어느 여름날이었겠지. 영원할 것만 같던 그 날이 박제된 60년 전 이 낡은 사진 한 장 앞에서 이제 나는 깊은 침묵에 빠진다. 어제, 가을이 붉게 익어가던 날, 뒷줄에서 미소 짓던 무구한 용재가 우리 곁을 떠나갔다. 앞줄의 정환이, 정범이, 그리고 나는 지금을 모르고 있다. 두어 달 전, 누렇게 빛바랜 이 사진을 우연히 발견하고 멀리 있는 친구들을 떠올렸다. 그 중에서도 4년 전인가 다정한 반려자를 잃고 상심에 빠져 홀로 지낸다던, 외로운 용재의 얼굴이 눈에 밟혔다. 무심하게도, 이 사진과 함께 꼭 안부를 전하리라던 나의 다짐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이제는 그의 訃音 앞에서 뒤늦은 슬픔과 회한으로 남았다.

고향의 바다를 배경으로 한 이 눈부신 청춘의 조각을 그에게 먼저 보내주었더라면, 아픈 그의 마음이 조금은 위로받지 않았을까. 안타깝고 그리운 마음에 사진 너머 저 구름 속으로 사라져 가는 그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본다. - 김병오(69, 버지니아)

---

and frog legs in Paris or a bison burger in Jackson Hole, Wyoming. And he really, really loved lobster; when our parents visited the Maine Coast for a week, he reportedly ordered one for dinner nearly every night.

Above all, Dad was a devoted husband, father, and grandfather. He helped create our Halloween costumes, carefully cutting out and applying glitter to the halos and wings for our favorite angel and princess outfits. He also "helped" with our fifth-grade science project, for which we traced our bodies and drew muscles on one half and bones on the other. Naturally, he brought out his medical textbooks, and our project may have looked a little too polished compared with our classmates'. When we needed current-events articles for school, he selected the best options and discussed them with us. He attended every music recital and graduation, always beaming with pride. In countless ways, both large and small, he showed up for us.

Dad taught us many lessons by the way he lived: work hard, make time for family, appreciate every vacation, notice the beauty around you, enjoy delicious food, try new things, take a few risks, and always be on time. Our memories of him are filled with long days at the hospital and weekends spent with us or with our mother going out with their group of friends from high school or university. Thank you, Dad, for working so hard throughout your life to give Mom, your daughters, and your grandchildren the best life possible. During the final 10 years of your life, Mom made sure you were comfortable, lovingly cared for, and surrounded by the home and family you cherished. You died peacefully with her by your side. We will carry your lessons, your curiosity, and your love with us always, and we will keep striving, as you did, for "the best."

Peggy Chang & Jane Chang October 18, 2026

가지마라 가지마라 가지를 마라



김중권 형의 부인께서 작고하셨다는 말을 엄규동에게서 듣고 잠시 머리가 띵하게 울렸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 하는 생각이 불쑥 들었다.

부인께서 지난 3년 동안 갑작스레 시작된 '점진적 근무력증'에 시달리시다가 지난 10월 8일에 운명하셨다는 슬픈 소식. 전화로 그 상황을 내게 설명하면서 중권이 형은 울먹이는 감정을 조절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참이었다. 아, 그리고 형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부인을 시중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다는 사연이다.

오래전 동기 모임을 각자 집에 모여서 가라오케를 켜 놓고 마음껏 노래를 부르던 시절이 있었다. 중권이 형의 롱아일랜드 집 넓은 지하실에서 순번을 정해 놓고 앞을 다투다시피 너 나 할 것 없이 목청을 가다듬고 노래하던 기억이 생생하다. 당시 중권이 형의 18번은 노사연의 1989년 히트 곡 〈만남〉이었다.

형은 오래 전 플로리다로 이사를 가고 세월이 흘러흘러 이제 우리 동기 모임은 다들 음식점에서 얼른 만나 두어 시간 한국정치 얘기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부리나케 헤어지는 식으로 바뀌었다. 그런 미동부 뉴욕, 뉴저지 시니어 모드에 아무도 노래 따위는 부르고 싶지 않은 시대에 접어든지 꽤 오래다.

문득 중권이 형 부인이 맑은 목청으로 가라오케에 맞추어 엄청나게 잘 부르시던 노래, 〈모닥불〉이며 〈개똥벌레〉가 떠오른다.

〈모닥불〉은 박인희의 1973년 히트 곡. 캠프파이어가 꺼질 때까지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대학생들의 열기가 느껴지는 건전가요. 반면에 〈개똥벌레〉는 한참 후 1987년 신형원의 히트 곡으로서 가사가 모던하고 따스하고 애절하다. - "나는 개똥벌레 어쩔 수 없네/ 손을 잡고 싶지만 모두 떠나가네~♪♬" 하는 부분이 더욱 그렇다.

중권이 형에게 이틀 후에 다시 전화를 건다. 혹시 짤막하게라도 부인님을 추모하는 글을 시계탑에 써 보낼 수 있겠냐고 물어보기 위해서다. 형은 아직 너무 경황이 없어서 전혀 그럴 수 없고 한 1년 후쯤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한다. 얼른 수긍이 가는 말씀. 형이 독백처럼 "마음이 허전하고 자꾸 불쑥불쑥 생각이 나네" 하고 말했을 때 오히려 내 쪽에서 더더욱 울컥해진다. 이렇듯, 있는 그대로 터져 나오는 진솔한 발언이 듣는 이의 속 깊은 심금을 울리는 법.

형수님, 박나현 님의 애틋한 창법을 떠올린다. 그녀가 부르는 〈개똥벌레〉의 한 구절이 머리 속을 왕왕 울리는 2026년 시월 18일 밤, 그녀가 다른 세상으로 떠난지 딱 열흘만이다. - "가지마라 가지마라 가지말아라/ 나를 위해 한 번만 노래를 해 주렴 ~♪♬" - 서량(69, 대뉴욕)

나 드럼 함 쳐 볼란다



준재는 훌륭한 드러머였다. 한국 유행가 반주를 할 때 감성이 북받쳐 오를라치면 템포가 좀 급해지는 순간이 있었지만, 우리 같은 아마추어 의사악단으로서 그 정도는 애교로 받아들여지는 법. 윤시내의 〈열애〉에서, "그리고~♪♬" 하며 숨을 멈추었다가, 이내 퉁퉁퉁, 텅텅텅 하며 드럼 솔로가 튀어나오는 부분이 특히나 그랬다.

그때가 1980년 가을쯤이었을 것이다. 최진훈(70), 이규현(68), 정인용(70), 그리고 준재와 나, 5인조 의사악단이 결성된 때가. - "나 드럼 함 쳐 볼란다," 하며 말을 내뱉기가 무섭게 나와 함께 동네 악기점에 들이닥쳐 풀 드럼 세트를 장만한 준재였다. 그는 강단 있는 사나이였다.

지난 3월에 준재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루 전날까지 멀쩡하게 환자를 진료하다가 딸 에리카의 종용으로 그녀가 근무하는 'White Plains Hospital'에 잠시 입원한 후 금세 근처 요양원으로 옮겼다는 사연이었다. 에리카는 폐암이 이미 많이 전이된 상태 같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한달쯤 후에 준재는 전망 좋은 뉴저지 아파트로 장소를 옮긴 후 내내 침대에 누워지냈다. 최진훈, 엄규동이 그를 자주 방문했고, 나는 얌전하게 누워있는 그와 매주 수요일마다 한두 시간 이야기를 나누는 습관이 생겼다. 그는 많이 말랐고 기력이 없어 보였다.

어린 시절에 경상도 낙동강 주변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와 말할 때 나도 줄곧 경상도 악센트가 들어가는 억양으로 침을 튀기며 떠들어댔다. 그것도 격식 있는 말 대신에 비속어를 섞어가면서. 나이 먹을수록 영어나 한자어를 쓰기가 싫어진다고 투덜대기도 하면서. 준재는 힘없이 자주 웃었다.

7월 11일 그의 처소를 떠나고 두 시간쯤 지나서 그가 숨을 거두었다고 에리카에게서 연락이 온다. 에리카는 준재가 아무에게도 자기의 임종을 알리지 말라는 부탁을 여러 번 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곧바로 화장이 끝난 후 유골을 한국 청계사로 옮기는 내정이었다.

40여년 전 서울의대 졸업생으로 구성된 의사악단 '조스, Jaws'를 추억하며 디지털 앨범을 뒤적이다가 준재가 개똥모자를 눌러쓰고 노래하는 사진을 발견했다. 어깨를 잔뜩 쭈그린 자세. - 1980년대 초반,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롱아일랜드 호텔에서 무슨 한인단체 무도회의 연주를 맡았던 때 같다.

그날 그곳에 일찍 도착해서 리허설을 하던 중, 규현이 형과 정인용이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준재가 그의 18번 〈돌아가는 삼각지〉를 목청껏 부르는 모습이다. 마침 또 육순재(69)가 이때가 때다, 하며 준재의 드럼을 쇠 브러시로 살살 내리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다. 80년대 헤어스타일 진훈이가 키보드를 치면서 히이, 웃는다.

사실 준재는 좋은 내과의사에다가 드럼만 잘 쳤던 게 아니라 노래도 참 잘 불렀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때가 마냥 그립다. - 서량(69, 대뉴욕)

새로운 시작, 2026년 7월

"Everything beautiful is temporary, precisely because it does not last."

조 중 행(69, 시카고)

2026년 4,5,6월 3개월이 몹시 바쁘게 지나고 이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4, 5월을 서울에서 지내고 6월 초에 시카고로 돌아오자마자 그동안 팔려고 내어 놓았던 집이 드디어 팔리게 되어 6월 말에 시카고 서부 교외에 있는 은퇴자들을 위한 Gated Community의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였다.

낙양으로 이사 갈 때 오동나무 가지에 걸린 달을 보고 집값을 반이나 더 주고 새집을 샀다는 당나라 시인 백낙천(白樂天, 居易, Bai Juyi)의 "매월 고사(買月古事)" 이야기처럼, 달과 별 모두 다 잘 볼 수 있었던 나의 집값을 더 잘 쳐 줄 새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적당한 값에 계약대로 이사를 마쳤다.

아이들이 집 떠나기 전 지어놓은 후, 지난 35년 동안 살아오며 조금씩 낡아가던 큰 집을 두 늙은이가 유지해 오려니 비용도 비용이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았다. 이번 이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80줄의 늙은 부부가 겪어야 했던 비용, 몸 고생, 마음고생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겠지만- 이제 이사 온 새집에서의 우리의 삶이 물 흐르듯 평안하기를 바랄 뿐이다- 이사하면서 수많은 책, 옷, 그릇들, 사진, 옛날에 발표했던 Kodachrome Slide, Surgical Film Movie, Video tape 들까지- 두 트럭 분량 넘게 버렸고, 아직도 유로 창고(Storage House) 있는 레코드 등 일부 정크는 천천히 좀 더 정리해가며 버릴 계획이다.

이사한 지 이제 한 달- 우리가 자리 잡는 모습을 보려고 지난주에는 캘리포니아의 딸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며칠 같이 지내고 돌아갔다. 아들네까지 모여서 꼬마들과 얘기하다 보니 다리, 허리, 여기저기 결리던 것들도 좀 덜하고. 드디어 금년 처음으로 손자를 데리고 골프를 두 번 쳤고 며칠 전부터 집 부근 새 동네 공원에서의 저녁 산보도 시작했다. 들꽃이 한창이었다.

자신이 일생 동안 살아왔던 여러 종류의 집들을 몽환적이고 아름다운 대형 설치 작품들을 연이어 중요 미술관을 통해 발표하며 세계적 미술가의 반열에 올라선 서울미대 출신 서도호와 같은 재주도 물론 나에게는 없다. 많은 추억이 있었던 옛날 우리 집이 우리 식구 모두들에게 가끔 그리워지겠지만, 덧없는 인생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러나 사라진 것들도 소중한 것이다. - "모노노 아와래(物の哀れ)(MONO NO AWARE)": 유명한 일본 속담처럼.

"Everything beautiful is temporary,
precisely because it does not last."

An Accomplishment:

That is, Playing 9 holes of Golf

Hahn Joong Lee(65, CA)

The word, accomplishment, sounds overwhelming and big
to an 86-year-old, frail guy, spending full time taking care of himself
dealing with relentless challenges by Parkinson's for years.
I've been playing golf since age 39 as soon as
all my three children were attending schools.
Achieving and maintaining a single handicap once made me
feel like accomplishing something, I do remember.
For some time now I have found it hard to come up with physical
and mental strength to finally get to the first tee box, often requiring
the encouragement of my wife, my permanent golf partner.
Yet for me golf remains the best tranquilizer, a relaxing medicine although
a bad fall while playing forced my neighbor elderly man to stop playing.
So, after not playing for two weeks for one reason or another,
after our mental and physical restlessness reached the peak of peaks,
finally one late afternoon we went out and played 9 holes.

What a relief!
I even made 2 pars.
I tasted once again what it's like to feel normal again like it used to.
Perhaps it's still possible for me to experience the feeling of
accomplishing something real - almost like beating old Nemesis,
that long time golfing buddy who often would beat you
when you were in your prime.

Finishing 9 holes without an incident with my lifetime partner
made me feel like I accomplished something real such as reminding me
I was a golfer again that I knew Perhaps that was more than enough
to convince myself I accomplished something real and remarkable
against all odds in this late survival game of life of mine.

Heavenly Father,
Have mercy on me!

2026년도 그린 프로젝트 장학생들의 미주 실습 후 감사편지

안녕하십니까 미주동창회 선생님들.

저는 의과대학 의학과 4학년 오현지라고 합니다.

먼저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의 의료 현장과 의학 연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자라 현재 서울에서 의학을 공부하기까지, 부모님과 친구들,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더 큰 세상을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장학 프로그램 역시 제가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 새로운 의료와 연구의 현장을 경험하며 시야를 넓힐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간 미국 유타주 솔트 레이크 시티에 위한 유타 대학의 Spencer Fox Eccles School of Medicine에서 연수를 하였습니다. 언어도 의료 시스템도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처음 마주하는 경험이 많았지만, 그 과정에서 미주 동창회 선생님들의 존재와 지원은 든든한 지지이자 큰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새로운 의료 환경과 연구 현장을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임상과 연구를 함께하는 의사과학자로서 어떤 길을 걸어가고 싶은지 더욱 깊이 고민해 볼 수 있었고 앞으로의 진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연수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잊지 않고 앞으로 꾸준히 배우고 성장하며, 언젠가 반드시 저 역시 모교와 의학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느 사람이 되겠습니다. 소중한 기회를 주신 미주동창회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학대학 4학년 오현지 올림

Dear Donor, I hope this letter finds you well.

I would like to express my heartfelt gratitude for your generous support through the Green Project Scholarship (Jin Hong-Woo Scholarship Fund). It is a great honor to be selected as a recipient of this scholarship, and I sincerely appreciate your investment in the education of future physicians. Your generosity has provided me with opportunities that have significantly shaped both my professional and personal growth.

Throughout medical school, I have sought to develop as both a clinician and a researcher. As a student researcher at the Health System Data Science Laborator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I have conducted nationwide population-based cohort studies using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database, resulting in three first-author publications in international peer-reviewed journals. I have also served as one of two elected Student Learning Representatives for my class and participated in volunteer medical services, experiences that have strengthened my commitment to patient care, education, and service.

With your support, I was able to complete a four-week clinical elective in the Division of Hematology and Oncology at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Working alongside outstanding physicians, I learned not only the latest approaches to cancer treatment but also how evidence-based medicine, multidisciplinary collaboration, and compassionate communication come together to provide individualized patient care. This experience reinforced my aspiration to become a physician who combines scientific research with compassionate clinical practice.

The scholarship also allowed me to continue pursuing my long-term goal of postgraduate training in the United States. I have completed USMLE Step 1, achieved a USMLE Step 2 CK score of 274, and passed the Occupational English Test (OET). During my clinical clerkships at UPMC Presbyterian and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I received highly encouraging evaluations from my supervising physicians, further motivating me to continue striving for excellence. Next year, I will continue my training through additional electives at UPMC and the Uni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 before applying for the 2027.2028 U.S. Residency Match.

Your generosity has given me far more than financial support.it has given me the confidence to pursue opportunities that will shape my future as a physician. I sincerely hope that one day I will be able to give back to future medical students and patients in the same spirit of generosity that you have shown me.

Thank you once again for your kindness, encouragement, and belief in my future. I will continue to work diligently so that your support will be reflected in the physician, researcher, and mentor I aspire to become.

With my deepest gratitude, Jang Ho Doo

2026-2027년도 미주교포장학생의 감사편지

김일영 박사님께,

먼저 저를 Il Young Kim, M.D.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해 주신 김일영 박사님과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뜻깊은 장학금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저의 학문적 여정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김일영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장학금은 제가 박사과정을 밟으며 한국학, 인문학, 문학의 교차점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저는 학문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문화적 목소리, 특히 그동안 충분히 조명받지 못했던 소외된 목소리를 더욱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박사님의 후원은 저의 연구에 소중한 재정적 도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학문적 연구를 발전시키고 해당 분야에 기여해 나가는 데 있어 큰 격려와 힘이 될 것입니다.

이번 장학금은 여러 학술대회 참석을 위한 비용과 문헌을 조사하기 위한 아카이브 연구 등 저의 학업과 연구 활동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김일영 박사님의 따뜻한 배려는 제가 박사학위를 계속해서 성실히 수행하고 연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며, 앞으로의 학문적 기회를 더욱 자신 있게 넓혀 나갈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의 연구와 학문적 포부가 교육의 가치와 다음 세대의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서울대의대 북미주동창회로부터 인정받고 격려받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이러한 뜻깊은 인정과 격려를 앞으로의 학문적 여정에서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 박사님의 아낌없는 후원과 저의 연구를 뜻깊게 인정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김일영 장학금의 수혜자로 선정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나영 올림

Dear Dr. Il Young Kim,

I am writing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Dr. Il Young Kim and the SNUCMAA-NA for selecting me as a recipient of the Il Young Kim, M.D. Scholarship. I am deeply honored to receive this award and truly grateful for Dr. Kim's generous support of my academic journey.

Receiving this scholarship is especially meaningful to me as I pursue my Ph.D. and conduct research at the intersection of Korean studies, the humanities, and literature. My work is deeply committed to amplifying diverse and marginalized cultural voices within the academic field. Dr. Kim's generosity will not only provide valuable financial assistance for my research but also serve as an important source of encouragement as I continue to develop my scholarly work and contribute to the field.

The award will directly support my academic pursuits, including travel to academic conferences and archival research. Dr. Kim's kind gesture will make a meaningful difference in my ability to pursue my degree and further my research, providing me with greater confidence and opportunities along the way.

I am especially grateful to know that my work and aspirations are being recognized and encouraged by the SNUCMAA-NA community, which values education and the advancement of future generations.

Thank you again for Dr. Kim's generosity and for this meaningful recognition of my work. I am sincerely grateful for your support and deeply honored to be a recipient of the Il Young Kim, M.D. Scholarship.

With sincere appreciation,

Nayoung Seo Bishoff. PhD Candidate in English.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nayoung.seo@gwu.edu



2026년 하반기에 꽂히는 詩風

서 량(69, 대뉴욕)



Instrumental

숨소리 나무잎 흔들리는 소리
Achoo! 山, 재채기 소리 콘트라베이스서껀
샛노란 달, 검붉은 해 둘 다 참 비슷해
심성 사나운 악사들의 숨가쁜 호흡
퉁, 티커툭! 실성하는 박자관념 따위
어떻냐 저 잘 통제된 분노의 질서가



뒤돌아보라

江물 앞에서 고개를 돌린다
江을 바라보는
강감찬 을지문덕 자유의 여신상
山을 덮는 해운대 모래사장
헐렁한 분홍색 윗도리를 걸친 채
한쪽 무릎을 약간 꾸부리는 한국 여자
내 옛날 새파랗게 젊으신 어머니



낚시면허

... 나도 당신을 좋아했어, 교외에 있는 당신 집의 슬픔, 당신의 초라한 정원도, 담당구역, 문 닫은 작은 부서에서 찾은 당신의 지도를 갖고 있어, 낚시 권한도 포함돼 있지.
– The Magnetic Fields: Andre Breton & Philippe Soupault (1920), 14 쪽

누군지 100년 전에 입술이 부르트도록 색소폰을 불었어 24살의 *앙드레 브르통 훤칠한 이마 위를 고물고물 기어다니는 예쁜 벌레들 하염없는 **automatism 검열당국의 부재현상 마음을 한껏 다그쳐먹었지 눈부신 파도를 헤집고 솟구치는 청옥색 환희 뭉게구름 쪽으로 푸득푸득 날아가는 당신의 실체를 붙잡기로

* 1924년에 초현실주의를 선포한 정신과의사 출신 프랑스 시인
** 1920년에 브르통과 수포가 처음 시도한, 생각이 흐르는 대로 시를 쓰는 자동기법



Tourist

홀몸이다 죄도 없이
여행가방 속에 무언지 꽁쳐 넣고
torso 아랫도리 배 죄다 없어
반쪽이다 몸 마음 맨해튼 Park Avenue
그래 빨간 불이라면 여기서 기다려라
일방통행 sign 옆에서
쑥쑥 솟아나는 초록 잎새 잎새 잎새들



스케치북 하나 들고 떠난 이탈리아 그림여행

홍건(70, 시카고)

이번에는 조금 색다른 여행을 했다. 그동안 여러 나라에서 의료선교 봉사도 했고, 아내와 함께 세계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사진도 찍었으며, 친구들과 단체로 국내외 여행을 다니기도 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래 걷는 것이 아내에게는 즐거움보다 점점 부담이 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함께하는 먼 여행을 사양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유럽에서 열리는 화가들의 그림 여행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물어보았더니 마음 놓고 혼자 다녀오라고 허락해 주었다. 마침 은퇴 후 열심히 그려놓은 수많은 유화 캔버스를 바라보며 "내가 죽으면 이 많은 그림들을 누가 어떻게 처리하나?" 하는 현실적인 걱정도 하고 있던 참이었다. 그러다가 캘리포니아에 사는 세계적인 수채화가 Keiko Tanabe가 이탈리아에서 watercolor workshop을 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는 부피가 큰 유화 캔버스 대신 종이 한 장이면 되는 수채화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6개월 전부터 내가 봉사하는 클리닉의 스케줄을 조정하고 workshop에 등록했다. 혼자 가는 것보다 그림을 같이 그리는 친구들과 함께 가면 더 좋을 것 같아 Northwest Indiana의 Duneland Plein Air Painters 회원들에게 알렸더니 Nicole과 Bunny가 얼른 같이 가겠다고 했다. 세 사람이 일정을 맞추어 비행기표도 사고 호텔도 예약했다.

시작부터 쉽지 않았던 여행

드디어 9월 22일 O'Hare 공항에서 만났다. 마침 버니에게 United Club guest ticket이 있어 라운지에서 기다리는 동안 새 스케치북을 꺼내 첫 그림을 그렸다. 그렇게 나의 이탈리아 그림여행은 시작되었다. 이코노미석의 좁은 자리에 앉아 8시간 반을 날아 Frankfurt에 도착했다. 터미널 Z에서 터미널 B로 옮기고 입국 수속까지 마친 뒤 열심히 뛰었지만 연결 비행기는 이미 떠나버렸다. 결국 8시간 반이나 기다린 후에야 다음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공항에서 마냥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아까워 나는 또 스케치북을 꺼냈다. 여행에서 예상치 못한 기다림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게는 좋은 소재가 되는 모양이다.

그 사이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Pisa 공항에서 Monterosso까지 우리를 태워주기로 했던 운전기사가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것이다. 급히 다른 회사에 연락하여 새로운 운전사를 구했다. 비용은 거의 두 배가 되었지만 세 사람이 나누어 부담하니 그나마 다행이었다. "친구들을 같이 오자고 하기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Pisa 공항은 생각보다 작았다. 우리를 기다리던 운전사는 어두운 밤, 좁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안전하게 운전하여 밤 9시가 넘어서야 첫 목적지인 몬테로소에 데려다주었다.

Cinque Terre 스케치

Watermill workshop이 시작되기 전, 우리는 이탈리아 서북부 해안의 다섯 마을로 유명한 Cinque Terre 중 하나인 몬테로소에서 며칠 머물며 시차도 적응하고 쉬기로 했다. Hotel 5 Terre에 방을 잡았다. 미국 호텔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침대도 작고 샤워 공간도 좁았지만 긴 여행 끝에 몸을 누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해변을 따라 늘어선 오래된 건물과 골목, 바다와 사람들 모두가 그림의 소재였다. 마침 장날이어서 오래된 건물 사이로 천막을 치고 과일, 채소, 기념품 등을 파는 상인들의 모습도 스케치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우리 속담이 이탈리아에서도 맞는 모양이었다. 둘째 날에는 기차를 타고 5분 정도 떨어진 Vernazza를 찾았다. 많은 관광객 사이를 지나 바닷가 높은 곳에 자리 잡은 Castello Doria에 올라갔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니 망망대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천연의 요새였다. 그림도 그리고 사진도 찍었다. 니콜은 비교적 젊고 채식을 좋아하며 해산물을 별로 즐기지 않았지만, 다행히 이탈리아계인 버니는 나보다도 해산물을 좋아했다. 덕분에 나도 눈치 보지 않고 octopus, calamari, anchovy 등 각종 해산물을 마음껏 맛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탈리아 여행에서 gelato를 빼놓을 수 없었다. 저녁을 먹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는 거의 어김없이 젤라토 하나씩을 들고 해변의 상점과 식당을 구경했다.

17세기 물레방앗간에서 그림을 배우다

2박 3일의 예비 여행을 마치고 토요일 아침, Laura라는 여자 운전사가 우리를 데리러 왔다. 바닷가를 뒤로하고 가파르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두 시간 정도 달려 드디어 Posara의 The Watermill에 도착했다. 이탈리아 Tuscany의 Lunigiana 지역, Fivizzano 근처에 있는 Posara는 지도에서도 쉽게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마을이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이용해 17세기에 만들어진 오래된 물레방앗간이 있었고, 1920년경까지 실제 방앗간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현재의 주인 Bill과 Lois가 이 오래된 건물들을 정성스럽게 개조하여 단순한 Bed & Breakfast가 아니라 예술가들이 머물며 배우고 창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세계 여러 나라의 화가들이 와서 워크숍을 열고, 그림뿐 아니라 quilting, poetry, Italian language 등 여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한다. 이번 주의 선생은 내가 이곳까지 찾아오게 만든 Keiko Tanabe였다. 일본 출신으로 현재 San Diego에 살며 세계 여러 곳에서 전시와 워크숍을 하는 유명한 수채화가이다. 우리를 만나기 직전에도 Armenia의 국제 미술 행사에서 가르치고 왔고, 이번 워크숍이 끝나면 잠시 미국 집에 들렀다가 다시 Sicily로 가서 워크숍을 인도한다고 했다. 그 강행군 같은 일정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일찍 등록한 덕분에 ground level 방을 선택할 수 있었다. 오래된 3층 건물이라 계단을 자주 오르내리지 않아도 되어 감사했다. 방에 들어가니 가까운 오래된 교회의 종탑이 보이고, 아래로 흐르는 물소리가 정겹게 들렸다. 참가자는 모두 13명이었다. 알라바마의 Auburn에서 함께 온 6명, 시카고 지역에서 온 우리 3명, 그리고 각지에서 혼자 온 사람들이었다. 놀랍게도 참가자 중 남자는 나 혼자였다. 그야말로 "청일점"이었다. 다행히 참가자 Sandra의 남편 Richard가 함께 와서 식사 시간에는 남자가 한 명 더 있었다.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간호사로 일했던 사람도 있었고, 외교 관련 일을 하며 Ethiopia에서 1년간 근무했다는 87세 여성도 있었으며, 한국에서 잠시 가르쳤다는 Canadian도 있었다. 서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그림 하나 때문에 이 작은 이탈리아 시골마을까지 찾아왔다는 것이 신기했다. 그리고 일주일을 함께 지내며 우리는 금방 친구가 되었다.

Keiko의 붓질을 바라보며

다음 날부터 Keiko는 조금의 틈도 주지 않고 워크숍을 시작했다. Watermill 뒤로 흐르는 작은 물가에서 Richard가 낚시하는 모습을 보고 바로 첫 demonstration을 시작했다. 붓을 움직이는 모습이 놀라웠다. 수채화는〈다음면 계속〉

합창
Messiah와 우리들

김주평(68, 버지니아)



1966년 봄에 우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3학년이 되었고 학생회의 의무가 우리 반으로 넘어오게 되었다. 학생회장에는 지금은 고인이 된 김승삼이 당선되었고 나는 음악부장의 임무를 받았다.

음악부는 매년 가을에 열리는 음악회를 주관하고 있었다. 음악부는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으로 구성되었다. 단원은 의학과 학생들과 간호학과 학생 그리고 몇 명의 서울음대 찬조 연주자가 그 구성원이었다. 그해 우리는 감히 Handel의 Messiah에 도전하기 결정했다. 조금은 어려운 일이지만 앞으로 이렇게 한단계 높여서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연습을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는 연습을 하다가 아주 심각한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었다. 소프라노가 가장 높은 음을 낼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여러 가지 가지로 생각한 끝에 합창 전체를 반음을 내려서 부르기로 결정했다. 그러니 나에게는 엄청난 일거리가 생긴 것이었다. 악보의 조를 바꾸어 반음을 내려서 다시 만들어야 했다. 이것이 가능할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음악회를 포기해야 했다.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심정이었었다. "하나님 저에게 총명과 슬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 항상 지루하기만 했던 정신과 강의 시간을 한 달을 빼먹기도 하면서 새로 악보를 만드는 일에 착수했다. 그때 당시로는 새로 악보를 만들어서 그것을 복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선 기름종이 위에 오선지를 그리고 거기에 악보와 음악을 써야 했다. 이 작업은 깨알 같은 입자가 가득한 철판(가리방)위에 기름종이(원지)를 올려놓고 철필로 악보를 그리고 조를 바꾸어서 만든 음악곡을 써넣어야 하는 아주 정교하고 아슬아슬한 작업이었다. 이것이 그 당시의 프린트 기술이었다. 한 달 가까이 노력한 결과 60개의 악보가 완성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연습을 계속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약속했던 지휘자가 갑자기 사임을 하시는 것이었다. 그분은 당시 춘천에 있는 성심여대의 음악교수였다. 당시 우리의 행사 진행위원이었던 서영일, 문광재, 김성렬과 함께 나는 교수님을 만나서 무릎을 꿇고 부탁을 드렸다. 그분이 결국 마음을 바꾸어서 허락을 해서 다시 지휘자로 오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날 아무 준비도 없이 춘천까지 갔던 우리는 돌아오는 길에 너무도 배가 고파서 어떤 음식점에 들러서 우선 밥을 마음껏 먹었다. 그리고 우리 주머니에 아무도 식비를 낼 돈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안하고 비겁한 일이지만 우선 한 사람씩 슬쩍슬쩍 뒷문으로 도망을 나왔다. 그 후 우리 중에 아무도 그 집에 돈을 보내지 않았다. 이것은 어찌 보면 양심의 문제이었다. 그래서인지 그 잘못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여러 가지 난관을 거쳐서 우리는 해마다 명동 국립극장에서 하던 음악회를 더 나아가서 넓은 시민회관에서 하기로 변경하고 용감히 밀고 나가기로 했다. 그날 다행히 회관의 좌석이 가득히 찼고 그 관중한테서 대단히 놀라운 호응을 받았다. 자랑스러운 날이었다. 공연 후 마지막 정리를 하고 나오는데 한 노신사가 잠깐 이야기를 하자고 하셨다. 무슨 일인가 하면서 만나보니 나를 보고 "자네가 음악부장이냐?"라고 하셨다. 그렇다고 하니까 "왜 악보를 고쳐서 합창을 했는가?" 하면서 물으셨다. 나는 깜짝 놀라서 할 말을 잃었다. 잠시 후 용기를 되찾고 설명을 드렸다. 연습 중에 소프라노가 가장 높은 음을 낼 수가 없어서 반음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을 드렸다. 그러면 누가 음을 내려서 악보를 다시 썼는가를 물으셨다. "제가 했습니다."라고 말했더니 나를 한참 똑바로 쳐다보시더니 대단한 일을 했다고 뜻밖에 칭찬을 해 주셨다. 그분이 누구이신지는 모르나 대단히 음악에 조예가 깊으신 분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음악회 준비 때문에 나는 정신과 강의를 빼먹어서 시험을 재시험을 보아야 했다. 비록 강의는 못 들어갔어도 정신과 시험공부를 김경인의 노트를 빌려서 열심히 했는데 막상 시험을 보는데 후반부의 질문들은 전혀 생소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재시험을 보기 전에 경인이한테 물어보니 자기 노트가 두 개인데 아마도 한 개만 나에게 주었던 것 같다고 하면서 다시 둘 다 주어서 이번에는 빠진 부분도 공부했다. 결국 재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여 낙제하지 않고 동급생들과 같이 나도 상급 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이것은 음악회 덕분에 혼이 났던 나의 젊은 날의 아름다운 추억이다.

〈전면에서 계속〉한 번 칠한 곳을 자꾸 다시 손대다 보면 색이 탁해지고 그림이 지저분해지기 쉬운데, 케이코의 붓질에는 낭비가 없었다. 한 번의 자신 있는 붓질로 필요한 색과 형태를 만들어냈다. "아,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보고 있을 때는 쉬워 보였다. 곧 2층 studio로 올라가 두 사람씩 테이블에 앉아 각자 가지고 온 수채화 도구로 방금 본 것을 따라 해보았다. 물론 그렇게 쉽게 될 리가 없었다. 그래도 열심히 따라 하면서 하루를 보냈다. 다음 날부터는 본격적으로 주변 마을을 찾아다니며 야외에서 그림을 그렸다. 나는 시차 때문인지 아침마다 일찍 눈이 떠졌다.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스케치북을 채우기 시작했다. 오전 10시에 출발하기 전에도 케이코가 Watermill 마당에 앉아 작은 스케치북에 순식간에 수채화를 완성하는 모습을 보았다. 붓질 하나하나에 조금도 낭비가 없었다. 그날은 차로 30분 이상 올라가 Monte dei Bianchi라는 산 위 마을을 찾았다. 케이코가 교회 옆에서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마을 풍경을 demo로 보여준 뒤, 우리 모두 흩어져 멀리 보이는 교회와 오래된 집, 숲과 산을 그렸다. 점심을 먹고 돌아와서도 다시 demo와 painting이 계속되었다. 말 그대로 그림을 그리는 "마라톤 코스"였다.

Fivizzano의 장날

화요일에는 Fivizzano의 Market Day를 찾아갔다. 마을 광장과 골목에 천막을 치고 과일과 채소에서 생활 잡화까지 온갖 물건을 파는 모습에서 관광지가 아닌 현지 사람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었다. 상인들에게 방해되지 않는 한쪽 구석에서 케이코가 demo를 하고, 우리는 각자 마음에 드는 장소를 찾아 흩어졌다. 나는 큰 건물의 처마 밑 그늘에 앉을 만한 돌이 있어 자리를 잡고 편안하게 그림을 그렸다. 오후 2시가 되어 대부분 숙소로 돌아갔지만 몇 사람은 더 남아 그림을 그려도 된다고 했다. 나는 당연히 남았다. 한 장을 더 그리고 나서 약 7천 보 정도 되는 산길을 천천히 걸어 내려오며 오래된 건물과 산 풍경을 마음껏 즐겼다. 저녁에는 Watermill의 딸 Lydia가 키보드를 연주해 주었다. 곧 결혼한다고 해서 모두 축하해 주었는데, 나는 연주하는 모습을 몰래 스케치해서 기념으로 남겼다.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린 Lucca

수요일은 free day였다. Cinque Terre 또는 Lucca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이미 Cinque Terre를 다녀왔기 때문에 루카를 택했다. 케이코도 루카로 간다고 해서 더욱 좋았다. Aulla 역에서 기차를 타고 루카에 도착했다. 버니가 꼭 가보고 싶다는 art supply shop을 먼저 찾아갔다. 미국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붓을 살 수 있다며 버니는 무척 좋아했다. 나는 케이코와 함께 시내 중심부로 들어갔다. 피자 가게 앞에 의자가 하나 있어 거기에 앉아 수채화 한 장을 그렸다. 그 후 케이코와 헤어져 혼자 돌아다니면서 계속 스케치를 했다. 점심시간이 되니 멋진 식당들이 나를 유혹했지만 그림 그릴 시간을 아끼기 위해 아침에 싸온 햄 샌드위치를 그늘에 앉아 먹었다. 하루 종일 다리가 아플 정도로 걸으며 그림을 그리다가 우연히 카페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는 니콜을 만났다. 나도 그 옆에 앉아 또 한 장을 그리며 white wine 한 잔으로 목을 축였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도 스케치를 멈추지 않았다. 옆에 앉아 있던 흑인 남자에게 눈빛으로 허락을 구하고 그의 모습을 그렸다. 나중에는 완성한 스케치를 보여주고 사진도 함께 찍었다.

옛 수도원과 산 위의 성

다음 날에는 근처의 오래된 수도원 건물을 방문했다. Il Convento dei Carmine라는 곳이었다. 과거 수도원이었던 건물을 개인이 구입해 별장으로 사용하면서 내부를 수리하고, 높은 벽에 fresco를 그려 옛 수도원의 모습을 복원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소유주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젊은 조카 부부가 그곳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케이코는 작은 분수가 있는 풍경을 골라 demo를 보여주었고 나도 그곳을 큰 수채화지에 그렸다. 드디어 금요일, 마지막 페인팅 데이가 되었다. 나는 아침 식사 전부터 밖으로 나가 동네를 스케치하고 있었다. 자동차 운전자들의 눈에 잘 띄도록 빨간 조끼를 입고 길가에 서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경찰 순찰차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멈추었다. 경찰은 영어를 못하고 나는 이탈리아어를 못하니 대화가 될 리가 없었다.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호텔도 없는 작은 시골마을 길가에 웬 아시아 사람이 새벽부터 빨간 조끼를 입고 서서 무엇인가 열심히 적고 있으니 수상해 보였던 모양이다. 나는 재빨리 "America, Chicago, Watermill, painting!"이라고 아는 말을 총동원하고 내 스케치북을 펼쳐 방금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제야 경찰도 안심한 표정을 지으며 떠났다. 그날은 산 위에 있는 오래된 성도 방문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성을 한 유명 화가이자 미술대학 교수가 구입하여 개축해 살았고,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아들이 물려받아 여름 별장으로 사용한다고 했다. 성에 딸린 작은 성당 내부도 둘러보고, 케이코의 마지막 야외 demo를 본 뒤 각자 흩어져 그림을 그렸다.

마지막 작은 전시회

Watermill로 돌아온 뒤 오후에도 계속 그림을 그렸다. 그런데 나는 오후 5시에 시카고에 있는 신학교 이사회 zoom 미팅에 참석해야 했다. 이탈리아 시골에서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리다가 컴퓨터를 켜고 시카고의 이사회에 들어가는 것도 묘한 경험이었다. 저녁 7시에는 일주일 동안 그린 그림들을 모두 스튜디오의 테이블 위에 펼쳐 놓고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서로의 그림을 보며 칭찬하고 격려했다. 샴페인도 터뜨렸다. 케이코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Watermill의 주인 Lois와 Bill도 함께하여 일주일을 잘 마친 것을 축하했다. 처음에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일주일 동안 같은 곳에서 먹고 자고, 함께 차를 타고 산길을 다니고, 같은 풍경을 바라보며 그림을 그리다 보니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졌다. 토요일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야 하는 사람들은 새벽부터 하나둘 떠났다. 우리 세 사람은 아침 식사를 한 뒤 내가 직접 그린 Thank You Card를 Keiko와 Bill에게 전하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 Pisa로 가는 차에는 마침 우리 시카고팀 세 명과 케이코가 함께 타게 되었다. 가는 도중 케이코는 내가 관심 있게 바라보았던 Cretacolor Aqua Graph brown watercolor pencil 하나를 선물로 주었다. "이걸 한번 써보세요." 작은 연필 한 자루였지만 나에게는 특별한 선물이었다. Pisa 기차역 앞에서 케이코와 작별했다. 열심히 가르쳐 준 것에 감사했고,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아쉬운 마음으로 헤어졌다.

Pisa에서 발견한 새로운 그림 방법

이제 다시 우리 세 사람만 남았다. Pisa에서 호텔에 짐을 풀자 니콜과 버니는 쇼핑을 하러 갔고 나는 또 그림을 그리러 나갔다. 저녁에는 함께 만나 시푸드를 먹었다. 버니가 해산물을 좋아하는 덕분에 나도 seafood linguine와 octopus 같은 음식을 마음 놓고 주문할 수 있었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다. 처음에는 루카를 다시 갈까 생각했지만 이미 한 번 다녀왔고 모두 피곤하여 그냥 Pisa에서 쉬기로 했다. 나는 아침부터 그림 도구를 챙겨 나가 작은 카페에 앉았다. 샌드위치, 오렌지 쥬스, 커피로 아침을 해결하면서 케이코가 선물한 브라운 워터칼라 펜슬을 처음 사용해 보았다. 놀랍게도 아주 마음에 들었다. 그동안 나는 주로 펜으로 선을 그린 후 수채화를 칠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 브라운 워터칼라 펜슬을 사용하니 선뿐 아니라 물을 묻혀 여러 단계의 명암을 표현할 수 있었다. 여행 마지막 날에 또 하나의 새로운 그림 방법을 발견한 셈이었다. 그날도 Pisa의 골목과 건물, 멀리 보이는 Duomo 등을 계속 그렸다. 월요일 아침 일찍 Pisa 공항으로 갔다. 너무 일찍 도착해 항공사 직원들도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기다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스케치북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Air Dolomiti를 타고 프랑크푸르트로 간 뒤 Lufthansa로 갈아타 시카고로 돌아왔다. 공항에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그림을 그렸다. 승무원이 내가 그리는 것을 보고 사진을 찍어도 되겠느냐고 물어오기도 했다. 그림 덕분에 여행 중 모르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었다.

100장의 스케치와 함께 돌아오다

돌아보니 2주라는 시간이 짧지도, 그렇다고 길지도 않았다. 아내와 함께 여행할 때에도 아내가 너그럽게 기다려 주어 한두 장 정도 스케치를 하곤 했다. 그러나 이번 여행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 놓고 그림만 그렸다. 세어보니 펜으로 그린 스케치만 약 100장이나 되었고, 그 밖에도 여러 장의 수채화를 완성했다. 아마나 개인으로서는 하나의 기록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여행에서 얻은 것은 그림 100장만이 아니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느꼈다. 평생 유화를 그려왔지만 이제 수채화라는 새로운 분야를 배우고, 세계적인 화가의 붓놀림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다시 학생이 될 수 있었다.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그림이라는 공통 관심사 하나로 친구가 될 수도 있었다. 그리고 여행 중에는 비행기를 놓치기도 하고, 낯선 산골길에서 경찰의 의심을 받기도 하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과 마주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예상하지 못한 일들까지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재미있는 그림과 이야기가 되었다. 은퇴 후 시작한 그림이 이제는 내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었다. 의사로 일할 때에는 X-ray와 여러 영상들을 들여다보며 병을 찾아냈다면, 이제는 같은 눈으로 세상의 색과 빛, 사람들의 모습과 오래된 건물들을 바라보며 종이 위에 남기고 있다. 앞으로 또 이런 그림여행을 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스케치북 하나와 작은 수채화 도구를 가방에 넣고 다시 떠나고 싶다. 이번에 케이코가 선물해 준 작은 브라운 워터칼라 펜슬도 물론 잊지 않고 챙길 것이다. 그리고 다음 여행에서는 또 몇 장의 스케치가 나올지 나 자신도 궁금하다.

Keiko Tanabe 선생의 수채화와 워크숍에 관심 있는 분은 ktanabefineart.com에서, 이탈리아 The Watermill의 여러 예술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분은 watermill.net에서 자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흐르는 江강

서 윤 석(68, 버지니아)

1 서울역을 떠나 남쪽으로 달리던 목포행 밤 열차는 한밤중에 대전에서 방향을 바꾸어 마치 잠시 북쪽으로 달리는 듯했지만 예정대로 이리 쪽으로 내려갔다. 날이 밝으면서 우리는 밀물로 차 있는 목포항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도시라기보다는 바닷가 들판이었다. 유달산이 서편에 보이는데 그 높이가 아주 낮았다. 우리는 아침 식사 후 전증도와 후증도로 가는 작은 통통 배에 올라탔다. 공대 광산과를 다니는 키가 큰 류대섭 형이 우리를 데리고 다니는데 그것은 *김신행의 아버지(김생기 님 영진약품)가 농촌계몽을 간다고 나서는 철 없이 보이는 우리를 염려하여 배려하신 덕분이다. 고등학교 1학년 여름이었다. 따라서 우리의 행선지도 신행의 어머니 고향인 전증도와 후증도, 지도 근처의 섬이었다.

슈바이처 박사를 존경하기도 하고 농촌을 부강하게 해야 나라가 잘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유행처럼 무전으로 배낭을 짊어지고 서울을 떠난 친구들도 있던 시절이다. 결국은 자비가 아니면 지인이나 인척들 혹은 선배 동문들을 찾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가 도착한 섬은 전증도이다. 방학이라 그곳 국민(초등)학교의 빈 교실에서 묵었다. 교장선생님댁에서 생선찌개를 포함한 음식을 마련해 주어서 여러 날 고맙게 먹었다.

우리는 초등학생들을 교실에 불러놓고 서울 학교 이야기를 하고 도시의 학교생활에 대하여 설명했다. 과연 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을까? 농촌계몽이라니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가 계몽을 당하고 온 것이 사실이었다.

썰물이었을 때 떠났던 길은 숙소로 돌아올 무렵에는 밀물로 바다가 되었다. 수영을 못하는 나는 침대용 고무튜브에 매달려서 숨을 죽이면서 그곳 중학생과 수영을 잘하는 일행이 밀어주는 대로 목숨을 맡기고 건너왔다. 그 고마운 현지 주민 학생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묵었던 교실에는 풍금이 있었는데 하루는 어떤 얼굴이 창백한 흰옷을 입은 젊은 남자가 들어와서 풍금을 치면서 "내 고향 남쪽 바다"를 목이 터지도록 테너로 불렀다. 우리에게 한마디도 없이 나갔는데 그가 누구이며 왜 그리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는 무슨 곡절로 이 작은 섬에 내려와 있었을까?

그때 우리를 데리고 간 류대섭 형의 이야기를 67년 후에 듣게 되었으니 기쁘다. 그는 공대 광산과를 나오고 광업회사를 차리고 성공한 기업인이 되었다. 근래에 90세 생일을 맞이하여 많은 재산을 공대에 기증하여 Hall of Fame으로 정해진다고 하니 무엇보다도 축하를 드린다. 구순에 아직까지도 건재하시다니 기쁘다. 그때 같이 갔던 김신행 교수나 *장기일 박사, *이흔영 박사는 벌써 타계했는데 건강 복을 타고난 분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지 흔영이도 또 일찍 타계한 공대를 나온 서갑석도 그분 회사에서 한동안 일했었지. 다 묻힐 이야기인데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다.

2 류대섭 형을 처음 본 신행이의 집은 서대문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자주 모였다. 우리는 방과 후 신행의 집에 자주 모여서 저녁에는 영어회화 공부도 했다. 선다도 가끔 하고. 미군 병사 두 명이 우리에게 American Indian 이야기나, R자 L자 발음을 혀를 돌려가면서 연습을 시키기도 했다. 이름이 Vandyke와 Michael로 기억하는데 그들은 끝나면 삼각지의 8군 사령부로 돌아가는 길에 청파동에 집이 있는 기일이와 나를 떨구고 갔다. 겨울이었는데 그 짚차 속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지금 생각하면 혹시 정보부 계통의 미군들이 아니었는가 생각한다. Van Dyke는 오크로호마 출신으로 계급이 상사쯤 되고 Michael은 시카고에서 당시 대학에 재학 중인데 군복무한다고 알고 있다. 나는 신행이 집에서 자전거도 빌려타고 원효로까지 다녀오기도 했다.



위 좌로부터 박신일,김신행, 최찬식, 서윤석
장기일, 고병걸, 김경 맨앞이 이흔영

나는 1961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공대 전자과 입시에 낙방하였다. 잘난 척하던 자존심을 잃고 부끄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2차로 다니던 한양공대에 휴학계를 내고 다시 대학 시험을 공부하던 때이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 때문이었다. 하루는 볼일이 있어서 청량리 우체국에 들렀다가 그곳에서 여주에서 올라온 한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남편이 몹시 아파서 새벽에 급하게 서울로 올라왔지만 막상 NMC 병원에 와보니 보증금이 없어서 입원도 못하게 되었으니 송금을 해달라는 전보를 대신 보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그날 그 일을 도와주고 걸어 나오다가 나는 갑자기 가슴이 쿵쿵 울리는 큰 깨달음을 느끼게 되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콸콸 눈물이 쏟아지는 참으로 이상한 감동의 순간을 경험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나는 공학도의 목표에서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진로를 바꾸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 입시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였다. 그 겨울에 신행이가 서울 법대를 1년 다니다가 Columbia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격려차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흔히들 관포지교를 말하지만 나에게는 이렇게 좋은 벗들이 많았다. 특히 장기일과 이흔영이도 그랬다. 이들은 내가 어려울 때면 늘 찾아왔다. 1962년 초 봄 박정희 대통령 때, 의과대학 입시를 그해부터는 전국 국가고시로 치르게 하고 체능을 포함했다. 의과대학 지망생들은 진명여고에서 시험을 보았는데 흔영이와 기일이는 그곳으로 학부모처럼 찾아와서 나를 격려했다. 그날 아침 시험이 끝나고 점심시간에는 중국집에 자리도 만들어주었다. 보석 같은 친구들이다. 그 고마움을 평생 기억하고 있다. 아! 그러나 이제 이런 벗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났다. 가슴이 아프다.

3 대한민국에서는 1960년대에는 청년들이 대학을 나와도 직장이 없었고 배고픈 국민들이 보릿고개를 넘겨야 했다. 그리고 우수한 학생들이 대개 법과나 공과를 갔었는데 요즈음은 최우등생들이 모두 의사만 되려는 세상이 되었다고 하니 이상도 하다. 그리고 의사가 되어도 중환자들 치료보다 성형수술을 하고 수입이 좋은 과목만 한다니 걱정도 된다. 나라의 장례를 생각하면 우수한 학생들이 의과대학에만 몰리지 말고 자신의 이상과 재능에 맞게 진로를 선택하기를 바란다. 그래야 훗날 자신들이 행복할 것이다.

서울 상대를 졸업한 흔영이는 경제학 공부를 위하여 미국으로 떠났다. 기일이도 서울공대 조선 항공과를 졸업하고 박사과정을 위하여 ROTC 육군 소위로 제대하고 1968년 2월에 미국으로 떠났다. 북한에서 김신조가 청와대를 습격하러 나왔을 때였다. 그리고 6년 전에 도미했던 신행이는 컬럼비아 대학에서 25세 나이로 경제학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했다. 그는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육군으로 입대 장교 교육을 받고 육군사관학교에서 교관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나도 1968년 2월 입주 가정교사도 하면서 6년의 과정을 열심히 견디면서 의대 대학을 졸업했다. ECFMG도 잘 치르고 미국으로 떠나기 위하여 군의관으로 입대했다. 그리고 졸업 후 입대하는 4월 말까지 몇 달간 서울대학병원에서 인턴들이 하는 일을 병실에서 배웠다. 이무렵 하루는 주사를 주려고 어떤 환자의 방에 들어갔다가 놀랍게도 중고등학교에서 미술 과목을 맡아주셨던 박상옥 선생님을 뵙게 되었다. 그때 선생님은 당뇨병이 악화되어 입원하시었다. 중학교 입학시험에서 소의 머리를 그리라는 문제를 김경승 님과 같이 출제하시었던 분이다. 그 문제 덕분에 나는 시골인 대전에서 국민(초등)학교를 나왔어도 들어가기 어려운 중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다. 박 선생님은 나의 첫 환자였으니 이상한 일이었다. 나는 그 해에 4월에 군의관으로 입대하여 3개월 군의학교 교육을 끝내고 육군 중위로 임관되었고 대구 효목동 군의학교의 교관으로 남게 되었다. 일곱 명의 타 대학 출신과 같이 특별히 선택되어서 교관요원으로 된 것이다. 대전에 계신 아버지가 친구인 박병배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부탁해서 그렇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지방의대를 나온 박수하, 배기원, 박찬훈, 정태수, 조석재, 이창준, 박종일은 나와 같이 3년간 복무한 교관인 47기 군의관들이다.



전남의대 박종일, 부산의대 배기원, 경북의대 정태수 , 서윤석 군의학교 교관들 1970년

군대 생활은 많은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서울대학을 나오면 우리가 가장 제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군의관으로 온 다른 의대 출신들을 만나서 같이 생활해 보니 나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 그들과 생활하면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의식주를 어떻게 생활하는가, 단체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칙이라 할까 그 지혜를 얻게 되었다. 연세의대, 수도의대, 카톨릭의대, 전남의대, 경북의대, 부산의대 졸업생들이 다 각자 훌륭한 점이 많았다. 모두가 나의 선생님들이었다. 그래도 나에게는 김종호 군의학교 교장이 서울의대 선배이었고 의무사령관에 경북의대 출신 정호영 준장이었지만 후임으로 오신 김병극 준장도 서울대 선배님이어서 혜택을 받았다. 해마다 500명가량의 군의 후보생들이 들어오면 교육을 담당했고 특히 48기와는 대량전상자 관리 연극시범도 담당하여 당시 채명신 2군사령관이 참관을 하러온 해도 있었다. 해군 의무중대가 있어서 "우리는 해군이다. 바다가 고향!!!" 하는 군가를 부르며 식당으로 왕래하는 해군 위생병 중대장으로 군의관 서좌일 대위(65년 졸업)도 얼마 동안 같이 근무했다. 전남의대를 나온 박종일 대위, 운동을 잘하는 부산의대를 나온 배기원 대위, 가장 나와 동고동락을 많이 한 박수하 박사(당시 대위)의 우정을 어찌 잊을 수 있으랴.



김의신(66졸업)
서윤석(68졸업) 교관

1968년 4월 입대한 육군 군의학교 군의 후보생 47기의 항명 사건은 두고두고 이야깃 거리가 된다. 군에서는 절대로 단체로 항명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월남에서 참전하고 귀국하여 장군 진급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김종호 대령이 교장으로 있었던 때에 일어난 사건이다. 자유로운 분위기를 주려고 시작한 김 교장은 여러 달 만에 후보생들에게 외출을 허락했다. 어두움이 짙어가는 저녁에 집결한 후보생들은 귀대 신고를 하는 시간인데 대열의 뒤에서 취한 탓인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군의 후보생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이다. 밤에 누가 응급을 알리는 비상종을 당겨서 장난을 했다는 사건도 있었다. 이 항명 사건으로 후보생들에게 임관 후에도 유격훈련을 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김병극 대령이 주도했으며 그가 김종호 대신 장군으로 진급을 한 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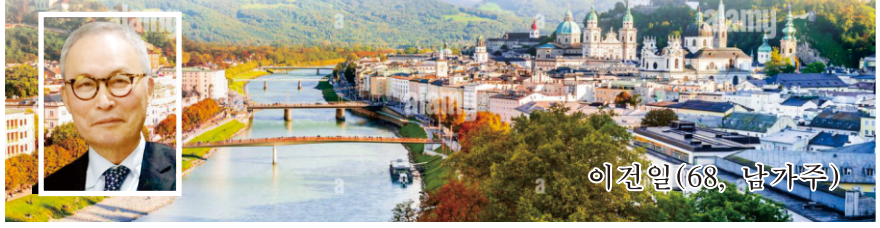
김종호 대령은 나중에 전역하여 외과를 개업했다. 나 개인적으로 교관으로 복무를 했을 때 나에게 큰 도움을 주신 선배였다. 나에게 의무실장의 중책도 맡겨주셨고 서울에서 나의 아버지가 서울대학병원에서 성공적인 위암 수술(민병철, 박건춘 집도)을 받으실 때 나에게 퇴원하실 때까지 휴가를 주도록 한 선배님이시다.

그분이 진급을 못하고 그 후임으로 김병극 장군이 의무사령관으로 오시고 전남의대를 나오신 이혜수 대령이 군의학교 교장으로 오셨다. 두 분이 다 나를 잘 대하여 주어서 고맙게 생각한다. 특히 김병극 의무사령관은 나를 새로 구입한 모터사이클에 태우고 영내를 돌기도 했으니 나는 아주 든든한 배경이 있는 사람처럼 지냈다.

제대가 몇 달이 남았을 무렵인데 나는 12월 6일에 결혼하게 되어 새로 동인동에 셋방을 얻어서 신혼을 차렸다. 아내가 차려주는 아침을 먹고 출퇴근을 하던 때였다.

그런데 겨울이 지나가는 3월경에 나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 오른쪽 폐에 늑막염이 생겨서 호흡이 힘들게 된 것을 발견했다. 대구 제1병원에 입원하는 대신에 나는 서울대학병원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하고 대구 K-2 비행장에 오는 KAL 비행기(소형)를 타고 상경하여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했다. 아내에게는 날벼락이지만 그래도 아내는 혜화동에 있는 이모집에서 묵으면서 2주간 나를 잘 간호했다. 후배 인턴이 주사기로 내 늑막에서 많은 양의 물을 빼니 가쁜 숨쉬기가 좋아졌다. 물론 Streptomycin, INH, Vitamin B6 약물치료를 계속했다. 당시 2주간 입원 중에 자주 문병을 온 친구 *송인서 교수에게 고마웠다. 그의 동생 송인경(69) 동문이 대학병원에서 내과 레지던트를 할 때이다. 내가 퇴원할 무렵은 고등학교 동기이면서 67년 졸업한 안영락(67)이 내과 전문의 시험공부를 하던 때였는데 나에게 병원 분수대 앞에서 담배를 끊으라고 했다. 그 후 나는 담배를 끊었다. 참 잘 한 일이다. 가끔 다시 피우고 싶었지만 그때 너무 혼이 나서 더 피우지 않았다. 안영락 내과 박사는 한국에서 금강병원을 운영하면서 모든 고등학교 동기들의 주치의처럼 많은 〈다음면에 계속〉

천재가 남긴 소금 성의 유산:
선율과 풍경 사이를 걷다



이건일(68, 남가주)

1. 일요일 오후, 라디오가 열어준 기억의 통로

나른한 일요일 오후의 정적을 깨고 흐르는 유튜브를 통한 라디오 소리는 때로 시공간을 이동시키는 마법의 통로가 된다. 최근 접한 KBS FM 47주년 기념 특별 방송이 바로 그러했다. 아나운서 신현주의 격조 있는 진행과 함께 울려 퍼진 바리톤 사무엘 윤, 최인식, 그리고 소프라노 이명주, 이혜진, 지나 오의 목소리는 거실의 공기를 단숨에 유럽의 어느 고전적인 홀로 바꾸어 놓았다. 피아니스트 김한길의 명징한 타건은 오케스트라의 빈자리를 메우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그 선율 위로 얹힌 모차르트의 아리아들은 마치 갓 구워낸 빵처럼 따끈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수준 높은 연주를 한국의 공영방송에서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다는 사실은 경이로움을 넘어선 자부심으로 다가왔다. 클래식의 본고장이라 자부하는 서구나, 거대 자본을 앞세운 미국의 대중적 호응보다도 훨씬 깊고 밀도 높은 한국 청중의 수준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방송은 모차르트 서거 270주년을 기리며 〈피가로의 결혼〉과 〈마술피리〉의 주요 장면들을 소개했다. 아나운서가 극의 서사를 차분히 짚어주면, 성악가들은 저마다의 기량으로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현현(顯現) 해 냈다. 그 열창을 들으며, 나는 어느덧 짐을 꾸려 잘츠부르크로 향했던 세 번의 여정을 떠올리고 있었다.

2. 천재라는 외로운 이름과 '소금 성'의 역설



우리는 흔히 천재를 추앙하지만, 동시대의 사회는 그 천재를 시기하고 박해하며 끝내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한다. 모차르트 역시 생전에는 빈곤과 무관심 속에서 투쟁해야 했던 고독한 영혼이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천재 한 명이 남긴 예술적 편린들은 수 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이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준다. 그가 빚어낸 음표들은 인류의 공동 자산이 되어, 우리 같은 평범한 이들의 삶에 위로와 기쁨의 색채를 덧입힌다.

잘츠부르크(Salzburg), 즉 '소금 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도시는 모차르트라는 한 명의 천재가 어떻게 도시 전체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후대에게 풍요를 선사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사례다. 나는 그 천재의 숨결을 확인하기 위해 잘츠부르크를 세 번이나 방문했다. 그곳의 구시가를 흐르는 잘차흐(Salzach) 강의 빛깔은 언제 보아도 신비롭다. 빙하가 녹아내린 물이 섞인 그 청회색의 물빛은 차가우면서도 흐릿하게 흐르며 도시의 고전미를 완성한다. 강변을 따라 늘어선 중세식 성당과 석조 건물들은 시간의 무게를 견디며 모차르트 시대의 공기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3. '황금 수사슴'에서의 나날과 예술의 향연

아내와 함께한 잘츠부르크 여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는 단연 게트라이데 거리(Getreidegasse)의 '호텔 골데너 히르슈(Hotel Goldener Hirsch)'였다. '황금 수사슴'이라는 이름답게, 이곳은 잘츠부르크에서 가장 유서 깊고 품격 있는 호텔 중 하나다. 호텔 문을 열고 거리로 나서면, 글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 가게의 특징을 정교한 철제 세공으로 그려 넣은 작고 예쁜 간판들이 마치 예술품처럼 머리 위로 매달려 있다. 그 간판 하나하나가 중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거리에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조차 잊은 채 산책을 즐기곤 했다.

우리는 이곳에 며칠간 머물며 '잘츠부르크 서머 페스티벌(Salzburg Summer Festival)'의 정수를 만끽했다. 빈 필하모닉(Vienna Philharmonic)의 정교한 연주를 직접 대하는 전율은 물론, 야외무대에서 펼쳐진 〈후궁으로부터의 탈출〉은 밤공기의 서늘함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마술피리〉, 그리고 베르디의 〈돈 카를로스〉에 이르기까지, 활자로만 접하던 주인공들의 고뇌와 사랑, 증오가 음악이라는 그릇에 담겨 승화될 때의 충격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단순히 책으로 읽는 줄거리만 볼 때와는 차원이 다른 감동이었다. 무대 위 가수들이 내뿜는 성량에 실린 고통과 환희가 객석까지 전해질 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인간의 복잡한 감정선이 선율을 타고 객석으로 쏟아질 때, 예술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온몸으로 절감했다.

4. 단둘만을 위한 무대: "호강을 매 맞듯이 하는구나"

어느 저녁에는 모차르트 시대의 음악과 식사를 재현한다는 식당을 찾았다. 공교롭게도 그날 예약했던 단체 손님이 예약을 취소하는 바람에 식당 안에는 우리 부부 외엔 아무도 없었다. 주인은 난처한 기색을 보이다가 이내 "이왕 준비된 것이니 두 분만을 위해 문을 열겠다"라고 제안했다.

그날 밤, 식당의 작은 무대에는 모차르테움에서 수학하는 젊은 음악가들로 보이는 외국인 가수와 연주자들이 올랐다. 오직 우리 부부 두 사람만을 위해 아리아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는 그들의 모습은 경건하기까지 했다. 텅 빈 홀에 울려 퍼지는 지극한 환대와 선율. 그때 내 입에서는 흥부전의 한 대목이 절로 튀어나왔다.

"호강을 매 맞듯이 하는구나!" 흥부가 박을 타서 금은보화가 쏟아질 때 외쳤던 그 감탄사는, 당시 우리 부부가 느낀 당혹스러울 정도의 과분한 행운을 표현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적절했다. 비록 모차르트 당시를 재현했다는 음식 자체는 현대적인 입맛을 가진 우리에게 생소하고 그리 맞지 않았으나, 그 귀한 순간의 가치는 음식의 맛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감사함의 표시로 음식값의 세 배가 넘는 팁을 건네며 식당을 나섰을 때, 잘츠부르크의 밤하늘은 어느 때보다도 찬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5. 할슈타트, 눈부신 풍광 뒤에 숨은 차가운 인심

잘츠부르크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다음 날 우리는 차를 몰아 약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할슈타트(Hallstatt)로 향했다. 오스트리아 관광포스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동화 같은 마을이다. 산 그림자가 깊게 드리운 호수 옆으로 옹기종기 모여 있는 오목조목한 집들과 거울처럼 맑은 호수면은 왜 이곳이 전 세계 관광객들의 순례지가 되었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근처 소금 광산의 역사와 어우러진 마을의 정취는 고즈넉함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 미려한 풍광 속에서 마주한 오스트리아의 민낯은 당혹스러웠다. 호수 위를 한가로이 노닐고 싶어 찾은 보트 대여점에서 주인은 우리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손사래를 쳤다.

"Nein, nein, No English!"

단 한 마디의 친절함도, 소통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 그 완강한 거절에 나는 아연실색했다. 풍광이 유려하다고 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인심까지 유려한 것은 아니라는 씁쓸한 진실. 나중에 찾아보니 오스트리아인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본래 불친절한 편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는 글귀를 보았다. 뛰어난 자연경관과 세련된 고전 문화를 가졌음에도 손톱만큼의 배려조차 보이지 않는 그들의 매정함은 할슈타트의 차가운 호수물처럼 마음을 할퀴었다. 자연이 준 축복 속에서 인간의 온기를 찾기란 이토록 어려운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6. 거장들의 어깨 위에 세워진 나라

불친절한 인심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인들이 끊임없이 오스트리아로 쏟아져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가진 '불친절함'보다 그들의 조상이 남긴 '위대함'이 더 크기 때문일 것이다. 모차르트, 슈베르트, 말러와 같은 음악의 성자들, 클림트와 에곤 실레 같은 미술의 거장들이 뿌려놓은 예술적 씨앗은 이제 거대한 숲이 되어 후손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조상을 잘 두면 후세 몇 대가 파먹고 산다"라는 세속적인 우스갯소리가 이곳에서는 가장 정확한 경제 논리로 작동한다. 나 역시 그 유산의 향기에 취해 잘츠부르크를 세 번, 비엔나를 세 번, 그리고 잘츠카머구트의 여러 마을을 찾아다니지 않았던가. 그들의 무뚝뚝한 표정 너머에는 자신들이 지켜온 문화에 대한 고집스러운 자부심이 깔려 있을지도 모른다. 혹은, 이미 예술 그 자체로 완결된 삶을 살고 있기에 타인의 시선이나 편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7. 남겨진 선율, 그리고 다시 일요일

에세이를 정리하며 다시 라디오 채널로 귀를 기울인다. 47주년을 맞이한 KBS FM의 기획은 모차르트의 서거를 기리며 우리에게 다시금 '천재의 의미'를 묻는다. 천재는 짧게 살다 가지만, 그가 남긴 음악은 시공을 초월해 한국의 어느 일요일 오후를 축제로 만든다.

잘츠부르크의 게트라이데 거리에서 보았던 작은 간판들, 잘차흐 강의 청회색 빛깔, 그리고 우리 부부만을 위해 연주하던 젊은 성악가들의 진지한 눈빛은 이제 내 마음속에 하나의 교향곡으로 편곡되어 남아 있다. 비록 할슈타트에서의 박절한 거절이 작은 얼룩으로 남았을지라도, 그 모든 경험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결국 모차르트가 남긴 불멸의 선율이었다.

예술은 인간의 증오와 사랑, 고뇌를 음악으로 승화시켜 우리를 위로한다. 좋은 프로그램 덕분에 나는 잠시 일상의 무게를 내려놓고 오스트리아의 그 고색창연한 골목길을 다시 걸을 수 있었다. 오늘도 나는 그 선율에 기대어, 언젠가 다시 마주할 그 차가운 강물과 뜨거운 아리아의 도시를 꿈꾼다. 천재 한 명이 만든 세상, 그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호강을 매 맞듯이 누리는 행복한 이방인이 된다. 좋은 시간, 그리고 더 좋은 추억이었다.

에필로그: 음악이 머무는 자리를 찾아서

우리는 왜 여행을 떠나는가. 아마도 그것은 낡은 일상에 새로운 선율을 입히기 위함일 것이다. 잘츠부르크의 '황금 수사슴' 호텔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느꼈던 그 막연한 설렘은 이제 라디오에서 흐르는 사무엘 윤의 중저음 속에 녹아들어 나의 일부가 되었다.

조상들이 남긴 유산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불친절함조차도, 어쩌면 우리가 감수해야 할 '예술의 입장료'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다. 풍광과 인심이 비례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풍광 속에 깃든 음악의 힘은 그 모든 서운함을 덮고도 남는다. 한국의 전파를 타고 흐르는 모차르트의 숨결을 느끼며, 나는 다시 한번 나의 '소금 성'을 마음속에 견고히 쌓아 올린다.

〈전면에서〉 친구들을 돌보아 주었는데 그가 수년 전 타계했다. 그 후 그의 유지를 받은 부인이 10억 원(백만불)을 의대 동창회에 기부했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 2025년 봄 미주 학술대회 때에 서울의 한규섭 의대 총창회장님을 통하여 들었다.

내가 1971년 7월에 군 복무를 마치고 늑막염이 치유될 때까지 여러 달을 서울 후암동에 있는 처가에 머물고 있었는데 달마다 나오는 월급봉투를 부산의대를 출신인 박수하 대위가 나에게 전해주었다. 참으로 고마운 친구이다. 박수하 박사는 1971년 제대 후 미국행을 포기하고 경희대학병원에서 전문의 과정을 마쳤다. 그는 누나가 여러분이지만 막내 외아들인지라 당시 80세가 되어가시는 어머님을 생각하고 한국에 정착한 효자이다. 어머니는 100세까지 장수하셨고 우리 부부는 어머니를 극진히 모신 그는 물론 그의 부인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박 박사는 인천 요양병원에서 일하며 골프와 테니스를 치며 건강하다. 그의 고등학교 친구이며 서울에서 아직도 이비인후과를 진료하는 전병두(68) 박사와도 같이 요즈음도 골프를 한다고 들었다.



2018년 서울 강남에서; 왼쪽부터 서윤석, 김신행, 장기일, 송인서, 고병걸

(다음 호에 계속)

주석:

*김신행; 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국제 경제론의 저자

*장기일; 공학박사 전 대우 캐리어 사장

*이흔영; NYU 통계학 박사, 장편소설
영문번역가(변수섭의 나비의 꿈)

*송인서; 전 강원대학교 역사학 교수
(동양사, 타이랜드 전공)



나두섭(73, 남가주)

카르멘은 프랑스 작곡자 비제(1838-1875)의 오페라다. 당대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인 바그너와 베르디의 시대에 살아서 명성을 날리기가 어려웠다. 그는 뛰어난 피아니스트였고 관현악곡과 가곡도 작곡했다. 그의 교향곡 1번 Symphony in C major는 특히 유명하다. 카르멘은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와 더불어 가장 많이 상연되는 오페라이다.

비제는 1863년 '진주조개잡이 The Pearl Fishers'를 작곡하여 오페라 작곡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 오페라는 세일론의 한 어부 마을에서 조개잡이 어부 나디르, 어부들의 족장 주르가, 그리고 지금은 여사 제레일라가 되었지만 한때 삼각관계에 빠졌었던 여인과의 이야기이다. 이 오페라에는 그녀는 사라졌고 우리의 우정 앞에 장애물은 없다는 내용의 남성 이중창 "성스러운 사원 뒤에서"와 나디르의 레일라를 향한 아리아 "귀에 익은 그대 음성"이 나온다. 한번 들어보면 오페라는 잊어도 이 두 멜로디는 잊을 수없이 귀에서 맴돌게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카르멘은 1875년에 작곡되었고 비제는 큰 기대를 걸었으나 3월 3일의 초연 실패로 비제는 큰 충격을 받았고 3개월 뒤에 심근경색으로 36세에 사망했다. 여주인공 카르멘의 자유분방한 성격에 비도덕적인 내용이 당시 프랑스에서 받아드려지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카르멘은 집시였고 당시에는 차별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비제가 사망한 후 1875년 10월 빈에서의 공연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작곡가 차이콥스키는 오페라 카르멘에 대해서 "카르멘은 모든 면에서 걸작입니다. 수 년 내에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오페라가 될 것입니다."라고 예언하였는데 그것이 적중하였다.

카르멘은 프랑스 작가 메리메가 1845년에 발표한 소설 카르멘을 원작으로 알레비와 메이야크가 공동으로 대본을 썼다.

오페라의 '서곡'과 카르멘이 부르는 '하바네라', 투우사 에스카미요의 '투우사의 노래' 그리고 돈 호세의 아리아 '꽃노래'가 유명하다. 그리고 오페라 4막 끝에 나오는 호세와 카르멘이 부르는 이중창은 어느 오페라에 나오는 이중창보다도 격정적이다. 카르멘 역할의 음역은 소프라노와 메조소프라노가 둘 다 할 수 있지만 메조소프라노가 더 많이 맡는다.

줄거리 1막: 1830년대 세비야의 한 무대. 시골 처녀 미카엘라가 약혼남 돈 호세를 면회하러 온다. 이후 병사들이 교대하고 아이들이 몰려온다. 근처의 담배공장에서 여공들이 휴식하러 나온다. 카르멘도 나와 '하바네라'를 부른다.

"사랑은 반항적인 새, 누구도 길 들일 수 없지… 위협해도 애원해도 소용없어…침묵하는 쪽이 더 끌리지… 사랑은 사랑은… 당신이 기습해 잡았다 생각한 새는 날개를 치며 날아가 버렸지… 사랑은 집시 어린아이… 당신이 날 좋아하지 않으면, 되려 난 좋아져…"이런 내용이다.

미카엘라가 와서 어머니 소식과 편지를 전해준다. 공장에서 싸움이 나고 카르멘이 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서 호세가 카르멘을 연행한다. 카르멘은 아리아 '세기디야 - 세비야 성벽 근처에서'를 부르며 풀어달라고 유혹한다. 호세가 카르멘을 풀어주고 영창에 가게 된다.

2막: 카르멘은 담배공장 일을 그만두고 술집에서 떠돈다. 그때 투우 경기 끝내고 온 에스카미요가 '투우사의 노래'를 부른다. "당신의 축배를. 나는 당신에게 줄 수 있습니다. …투우사들은. 그들은 전투를 합니다…. 축제일입니다…. 관객들은 고함을 지릅니다… 투우사여 조심하세요… 검은색 눈이 당신을 쳐다봅니다… 황소가 돌진합니다… 투우사여, 사랑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이런 내용이다.

카르멘의 친구들이 이번 밀수 건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나 카르멘은 거절한다. 이후 석방된 호세가 찾아오고 카르멘은 춤을 춘다. 나팔소리가 나고 호세는 부대로 돌아가려 한다.

카르멘은 분하여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하고 호세는 이 오페라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아 '꽃노래'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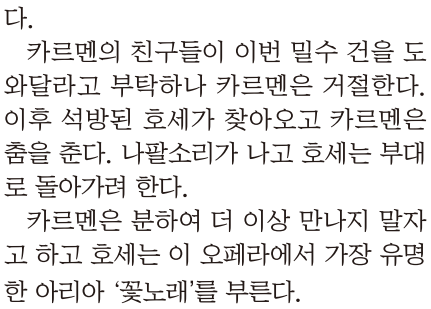
"…당신이 나에게 던져 준 꽃을 감옥에서 나는 간직하고 있었소 시들고 말라 버렸지만… 그 향기로 나는 취해 있었다오 … 단 하나의 욕망 단 하나의 희망 당신을 다시 본다는… 당신은 독점했다오 나의 모든 존재를… 카르멘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이때 호세 상관이 나타나 카르멘에 접근하였고 그의 부대 복귀하라는 명령에 불복하고 칼부림하다 군인 신분을 박탈 당하고 집시 친구 밀수단에 합류하게 된다.

3막: 산속에 있는 밀수업 은신처에서 호세는 밀수업을 같이 한다. 카르멘은 호세에게 싫증을 느끼기 시작한다. 미카엘라는 호세를 찾아온다. 에스카미요도 찾아오고 그가 카르멘을 사랑하는 것을 알아내고 분노하여 호세는 결투를 신청했으나 카르멘이 말렸고 에스카미요는 카르멘을 다음 투우 경기에 초대한다.

미카엘라가 호세에게 어머니가 위독함을 알리고 둘이는 같이 고향으로 떠난다.

4막: 카르멘은 투우 경기에 참석하였고 카르멘의 친구들이 호세가 와 있으니 자리를 뜨자고 권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배신당해 화가 난 호세가 카르멘 앞에 나타난다. 다시 시작하자고 애걸하는 호세에게 투우사가 새 애인이고 우리 사이는 끝났다고 말한다. 호세가 함께 가자고 윽박지르지만 듣지 않고 예전에 준 반지를 빼 던진다.

이성을 잃은 호세는 카르멘을 칼로 찌르고 승리한 에스카미요를 환호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카르멘의 시신 앞에서 자신을 체포 해달라며 오페라는 끝난다.



카르멘과 돈 호세의 최후의 이중창:

"…난 협박하지 않소난 간청하오…우리 함께 멀리 떠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시다… 당신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당신과 나 사이는 모든 게 끝났어요… 카르멘 아직 시간이 있소 …당신을 구하게 해주오… 싫어요 당신에게 굴복하지 않겠어요… 왜 아직도 다 끝난 사랑에 집착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카르멘 아 난 당신을 숭배하오… 당신이 원한다면 무엇이라도… 옛날을 기억해줘요… 전 자유롭게 태어났고 자유롭게 죽을 거예요… (카르멘이 투우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날 내버려둬요… 당신은 못 가… 난 당신과 함께 가지 않겠어요 …난 그를 사랑해요… (투우장에서) 승리의 투우사에게 영광을! …여기 당신이 내게 준 반지가 있어요 가져가요… (카르멘을 찌른다) 이 악마! …나를 체포하시오…내가 그녀를 죽였소 카르멘! 나의 사랑하는 카르멘!"

늦가을 바람 부는 저녁에



김병오 (69, VA)

얼마만인가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
이제 얼굴로 마주하기 어려운 나이
여행길에서 모처럼 기회를 잡아보았단다
언젠가 약속처럼 밖엔 늦가을이 와 있고

다음 주 금요일 저녁 자네 집 앞 은행나무 숲에 가서 전화할께.
아니 괜찮아 아직 코비드도 그렇고 헴톤인에서 머물지
고맙고 반갑네
목 메인 소리가 그리움을 안고 있었다
내 셀폰은 없고 와이프와 함께 쓰고 있지
언제라고
다음 주 금요일 저녁임을 확인해 주었다

우리는 미국에서 靑雲을 꿈꾼지 50여년
그는 거대한 전화회사 중역을 끝으로 은퇴했다
교정의 회화나무와 구름꽃 피던 水鍾寺 소풍길과 일년 전 타계한 친구와
사업에 실패한 동창생 이야기도 묻고 대답하며 짧지만 눈물겹게 시간은 흘렀다
우리는 연인들처럼 목소리를 길게 끌며 전화를 끊었다

5분후쯤 갑자기 울린 전화 벨 소리
미국인 부인의 탁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Steve is in dementia'
그럴 수가, 그럴 수가, 내 목소리가 아무 곳에도 닿지 않았다

늘 먼저 도착하던 사람, 혹여 강 건너 불빛이라도 보았단말인가

밤이 새도록
늦가을 바람에 쓸려가는 有情한 낙엽 소리를 듣고 있었다.



오 년 워런티

천양곡(69, 텍사스)

요 근래 좀 값이 나가는 TV 하나를 샀다. 집 거실 벽에 티브이를 단단히 고정시켜 놓은 뒤 판매원이 말했다. "이 티브이는 꼭 오 년 워런티를 가지셔야 합니다." 나는 "오 년 보장"이라 속으로 중얼거리며 잠시 망설였다. 내 모습을 살핀 판매원은 특유의 세일즈맨 십을 발휘해 설득에 나섰다. 아무리 잘 만든 기계도 5년 이내에 고장 날 가능성이 있고, 만약 고장이 나면 수리비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등을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판매원과 달리 티브이의 수명보다 내 삶의 유효기간을 측정 중이었다. 결국 워런티 온라인 증서에 사인을 했다. 판매원에 설득 당한 게 아니다. 오 년 안에 내가 죽을 것이란 가능성에 대해 강한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요즘 TV는 화면이 선명하고, 또 스마트하다. 리모트 조절 하나로 뉴스도 듣고,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지구촌 곳곳 사람들의 삶도 살필 수 있다. 너무 선명한 비싼 티브이의 화면을 응시하며 나는 왠지 마음이 서글펐다. 5년이란 숫자가 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던 것이다. 젊었을 때의 5년은 그리 신경 쓰이지 않았다. 대학 졸업, 군 복무, 결혼, 두 아이 아버지, 도미, 병원 인턴, 레지던트, 정신과 의사를 하며 인생이란 긴 강을 5년씩 묶은 삶의 징검다리를 건너 왔다. 그 와중에 대부분의 삶이 나도 모르게 훌쩍 지나가 버렸다. 이제 은퇴 후 5년이란 세월은 내 삶의 생존 가능성을 묻는 숫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거의 반세기 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의 불안, 우울을 들었고, 이상한 생각과 행동을 관찰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그들의 비밀스러운 일도 가슴에 묻어 두어야 했다. 그중에는 다시 만나지 못한 많은 이들도 있었다. 일반 대중들은 대개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는 희망이나 미래가 없다고 여긴다.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마음의 병 증세가 좋아지면 자식들 시집 장가보내고, 여행도 가고, 다른 일도 해보겠다는 말을 항상 들었다.

그런데 일반 대중이나 마음 병 환자나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의 미래를 보증 받을 수 없다. TV는 5년 보증이 있지만 인간에게는 그런 게 없다, 건강검진 결과가 좋아도, 헬스 센터에서 매일 규칙적 운동을 해도,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평안한 마음을 가져도 내일 아침까지의 삶을 보증 받지 못한다. 단지 지금, 여기 오늘을 살아갈 뿐이다. 그러니 70대든, 80대든 오늘이 주어진 사람은 모두 미래를 소유한 다복한 사람들이다. 5년 뒤에 내가 이 TV를 보고 있을까 의심하기 보다 지금 거실에서 선명한 화면을 보며 웃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아침에 눈이 떠지고, 밥 먹고, 누군가의 목소리 듣고, 한 줄의 글을 쓸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 어쩌면 노년이란 남은 날들을 새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귀하게 여기는 삶을 깨닫는 나이 인지도 모른다.

Tv를 구매한 그날 저녁, 컴퓨터에 입력된 5년 TV 워런티 내용을 다시 읽어보았다. 문득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더구나 아직 쓰지 않은 글 제목이 남아 있어서 말이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증기간이 아니다. 오늘이 주어졌다는 사실이다. 5년 뒤, 아니 한 달 후의 나는 모른다. 하지만 오늘의 나는 지금 여기서 숨 쉬고 산다. 하루 더 살 수 있다는 것,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값비싼 무상 보증 증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영어로 쓰는 시조 5

시조의 세계화



박종희(75, 시카고)

오래된 시조에 오늘을 담다

시조는 오랜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의 정형시입니다. 그렇다고 시조가 옛날에만 머물러 있는 문학은 아닙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시조가 담아내는 풍경과 언어도 함께 달라져 왔습니다. 봄비를 머금은 씨앗에서 시인의 탄생을 떠올리기도 하고, 가난한 집 곁에 핀 살구나무에서 궁궐보다 더 큰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또 전깃줄 위에 앉은 제비들을 보면서 새로운 음악을 떠올리기도 하지요. 현대시조는 전통적인 세 장의 구조를 이어가면서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감정을 자유롭게 담아냅니다.

유영애 시인의 「봄비 먹으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봄비 먹으면 - 유영애 (1942-)
풀씨가 봄비 먹으면 눈트고 새잎나고
꽃씨가 봄비 먹으면 꽃피고 향기나고
가슴이 봄비 먹으면 시인이 눈을뜨고
When grass seeds drink the spring
rain, new sprouts and blades
spring out.
When flower seeds drink the
spring rain, flowers bloom and
fragrances emerge.
When my heart drinks the spring
rain, a poet inside of me is
awakened.

이 작품은 현대시조의 이런 특징을 아주 간결하게 보여줍니다. 풀씨가 봄비를 마시면 새싹과 풀잎이 돋아나고, 꽃씨가 봄비를 마시면 꽃이 피고 향기가 퍼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시선이 자연에서 사람의 마음으로 옮겨갑니다. 이번에는 씨앗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봄비를 마십니다. 그러자 그 마음속에서 '시인'이 깨어납니다. 이 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 장이 서로 나란히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풀씨, 꽃씨, 마음이 차례로 봄비를 마시고, 그곳에서 새싹과 꽃, 그리고 시인이 태어납니다. 마지막 장에서 갑자기 앞의 이야기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만들어진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자연의 성장을 사람의 마음으로 넓혀가는 것이지요. 전통시조의 세 장 구조가 현대적인 감성과 자연스럽게 만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완영 시인의 「분이네 살구나무」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작은 집은 분이네 오막살이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집 곁에는 마을에서 가장 큰 살구나무가 서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살구꽃이 활짝 피어나자 그 나무는 마치 임금님의 궁궐보다도 크고 화려한 것처럼 보입니다.

분이네 살구나무 - 정완영(1919~2016)
동네서 젤 작은 집 분이네 오막살이
동네서 젤 큰 나무 분이네 살구나무
밤사이 활짝 펴올라 대궐보다 덩그렇다
The smallest house in our village.
Boonie's little shanty house.
The tallest tree in our village.
Boonie's apricot tree.
Bursting into a full bloom
overnight, It looms larger than a
king's palace.

이 시에서는 '작은 것'과 '큰 것'의 대비가 참 인상적입니다. 처음에는 작고 초라한 집에 눈길이 갑니다. 그러다가 그 곁에 서 있는 큰 살구나무로 시선이 옮겨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살구꽃이 활짝 피어나면서 눈앞의 풍경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분이네의 현실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작은 집이 갑자기 커진 것도 아니고, 가난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달라진 것은 우리가 그 풍경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활짝 핀 살구꽃을 바라보는 순간, 소박하고 초라해 보이던 공간이 어느새 왕궁에 견줄 만큼 찬란한 세계로 바뀝니다. 시조의 마지막 장은 이렇게 현실 자체를 바꾸기보다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서관호 시인의 「작곡 중」을 보겠습니다. 이 작품에는 훨씬 현대적인 풍경이 등장합니다. 전깃줄 위에 제비들이 줄지어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이런 풍경은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익숙한 모습을 조금 다르게 바라봅니다.

작곡 중 - 서관호 (1948~)
제비들이 전깃줄에 작곡을 하고 있다
마디마디 모닥모닥 음표를 그려놓고
음정을 조율하느라 지지배배 바쁘다.
Swallows on power lines are
composing new music.
Tiny bodies are music notes.
measure after measure,
busily chirping, tweeting,
fine-tuning the new melody.

이 작품에는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앞의 두 작품과는 전개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시인은 첫 장부터 제비들이 '새로운 음악을 작곡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결론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하나씩 풀어갑니다. 제비는 음표가 되고, 전깃줄은 악보가 되고, 제비들의 지저귐은 아름다운 선율이 됩니다.

이 작품을 보면 현대시조가 꼭 마지막 장에서만 결론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생각을 제시하고, 이어지는 장에서 그 생각을 구체적으로 펼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전깃줄과 제비처럼 지극히 현대적이고 일상적인 소재도 시조의 세 장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시적 풍경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세 작품을 함께 놓고 보면 각각 다른 풍경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영애 시인은 봄비와 씨앗을 통해 마음속에서 깨어나는 시인을 보여줍니다. 정완영 시인은 작은 오막살이와 살구나무를 통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서관호 시인은 전깃줄과 제비를 악보와 음악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서로 다른 작품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늘 보아오던 것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점입니다. 봄비는 단순한 봄비가 아니라 마음속의 시인을 깨우는 비가 됩니다. 작은 집 곁의 살구나무는 궁궐보다도 찬란한 풍경이 됩니다. 전깃줄 위에 앉은 제비들은 어느새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음표가 됩니다.

어쩌면 시조가 수백 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 오늘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옛 시조에서는 사랑과 해학, 충절과 시대의 갈등을 노래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봄비와 꽃나무, 전깃줄 위의 새와 같은 일상의 풍경도 시조가 됩니다. 시대도 달라지고 소재도 달라졌지만, 세 장을 통해 생각과 이미지가 움직이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울림을 남긴다는 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조의 형식은 옛사람들에게서 물려받았지만, 그 안에 담기는 삶은 언제나 새로울 수 있습니다. 오래된 그릇이라고 해서 꼭 오래된 것만 담아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오늘 내리는 봄비와 꽃 향기, 전깃줄 위의 새,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까지 담아낼 수 있을 때 전통은 비로소 오늘의 문학이 됩니다.

저는 현대시조가 바로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 글에 인용된 시조의 영어 번역은 필자가 직접 했다.

달에 보내진 시조
한국 시조, 인류 문화의 기록으로 남다

2025년 3월, 한국의 전통 정형시인 시조 11편이 미국의 우주기업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Firefly Aerospace)의 블루 고스트(Blue Ghost) 달 착륙선에 실려 달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 시조들은 2023년 미국에서 출판된 시집 『The Polaris Trilogy』에 수록된 작품들로, 오늘날 인류의 예술과 문화를 달에 보존하려는 루나 코덱스(Lunar Codex)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내졌습니다. 블루 고스트 미션 1은 NASA의 상업 달 탑재체 수송 서비스(CLPS) 사업의 하나이며, NASA의 더 큰 아르테미스(Artemis) 달 탐사 계획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루나 코덱스 프로젝트

루나 코덱스(The Lunar Codex)는 세계 여러 나라 수만 명의 예술가와 창작자들의 작품.시, 미술, 영화, 음악, 문학 등을 다양한 저장 매체에 담아 우주와 달에 보내는 국제적인 문화 아카이브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캐나다의 물리학자이자 시인, 작가인 사무엘 퍼랄타(Samuel Peralta) 박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작품들은 장기간 보존할 수 있도록 니켈판에 미세하게 기록하는 저장 매체인 나노피시(NanoFiche)를 비롯한 여러 저장 매체에 기록됩니다.

"The Polaris Trilogy"에 수록된 시조 11편은 루나 코덱스의 Serenity Collection에 포함되어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의 Blue Ghost Mission 1을 통해 달로 보내졌으며, 2025년 3월 2일 달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시조가 달에 가기까지

"The Polaris Trilogy"의 수석 편집자인 조이스 브링크먼(Joyce Brinkman)은 미국 인디애나주의 Brick Street Poetry의 사무총장이자 시인입니다. 그녀는 세계 여러 나라의 시인들에게 각자의 고유한 언어와 시 형식으로 새로운 작품을 써 달라고 요청하여, 인류의 다양한 시를 달에 보내는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브링크먼은 세종문화회(The Sejong Cultural Society)의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의 전통 시 형식인 시조를 발견하고, 세종문화회 루시 박 사무총장에게 연락했습니다.

루시 박 사무총장은 한국의 시조 시인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여러 시인이 주어진 주제에 따라 새로운 시조를 창작해 제출했습니다. 브링크먼과의 인터뷰 영상은 세종문화회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선정된 시조와 시인들

브링크먼을 비롯한 편집진은 전 세계 시인들에게 우주와 관련된 세 가지 주제 가운데 하나를 택해 새로운 시를 창작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룹 1: 바위, 물, 공기. 유럽 · 아프리카 지역 / 그룹 2: 별, 해, 달 . 아시아 · 북미 지역 / 그룹 3: 얼음, 바람, 불 . 남미 · 호주 · 남극 지역

한국 시인들은 '별, 해, 달'을 주제로 시조를 창작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시조 시인 8명과 미국 시조 시인 3명의 작품, 모두 11편의 시조가 『The Polaris Trilogy』에 수록되었습니다.

수록된 시인과 작품은

구충회 〈달에게〉 김달호 〈운석의 꿈〉 김흥열 〈은하〉 박헌오 신비한 하늘 시집〉 서관호 〈강촌의 달〉 이광녕 〈해를 안고 오다〉 최은희 〈월광 소나타〉 채현병 〈칠월칠석날〉 Lucy Park 〈Moon〉 Elizabeth Jorgensen A Brother's Love〉 Nancy Jorgensen 〈Discovery〉

시조, 인류 문화의 기록으로

『The Polaris Trilogy』의 지구판은 2023년 미국에서 출판되어 지금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시조가 이제 달에까지 닿게 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전통 시 형식이 언어와 국경을 넘어 세계의 시인들과 함께 인류의 문화 기록으로 달에 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조 감상 . "The Polaris Trilogy"에 실린 세 편의 시조

강촌의 달 - 서관호 (부산)

눈밭이 희다한들 달빛이 없어봐라 배꽃이 곱다한들 달빛을 가려봐라 강물이 맑다고 한들 달 안 뜨면 뭐하니?

해설: 간결한 표현 속에 깊은 뜻을 담은 시조입니다. 시인은 눈밭, 배꽃, 맑은 강물 등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차례로 보여주면서 달빛의 존재를 강조합니다. 눈밭도, 배꽃도, 맑은 강물도 달빛과 만날 때 또 다른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단아한 자연의 이미지 속에서 달빛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는 존재로 다가옵니다.

Moon(달)- Lucy Park(Glenview, IL)
I sat under a pale crescent moon
when I learned of Mom's passing.
Halfmoon, smudged by the night
cloud, gazed at me when Dad
departed. Dear moon, with your
caressing smile, who are you
comforting tonight?
어머니 떠나신 날 본 창백한 초승달 아버지 가신 날 나를 내려다본 반달 오늘 밤 저 달은 온화한 미소로 누굴 위로하나?

해설: 이 시조는 시인이 겪은 상실의 순간을 달과의 조용한 대화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달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떠남을 지켜본 증인이자, 슬픔 속의 시인을 말없이 위로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마지막에는 "오늘밤 저 달은 … 누굴 위로하나?"라고 물으며 개인적인 슬픔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보편적인 그리움과 위로의 정서로 넓혀 갑니다.

이 작품은 원래 영어로 쓴 시조입니다. 브링크먼의 요청으로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국어 번역문이 달에 보내지는 시집에 수록했습니다. 시조의 구조를 살리면서 번역하기 위해 한국어판에서는 일부 표현을 줄이거나 생략했습니다. 이처럼 시조 번역은 원문의 의미를 살리는 동시에 시조의 형식을 유지해야 하는 섬세한 작업입니다.

달에게 - 구충회 (용인)

지구에서 달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수십억 년 세월 중 한순간을 살지만 살기가 매우 어렵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코비드는 우연히 생긴 병이 아닙니다 인간의 끝이 없는 욕망이 원인입니다 지구가 매우 심하게 오염되었기 때문이죠
생명체가 살기에 달세계는 어떤가요?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선 편에 이 편지를 띄웁니다

해설: 이 작품은 지구에서 달로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쓰인 연시조입니다. 시인은 달을 향해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지구 오염, 그리고 오늘날 인류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털어놓습니다. 마지막 연에서는 인간이 살아갈 새로운 길을 찾고 있다는 메시지를 달에 전합니다. 실제로 이 시가 우주선을 타고 달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주선 편에 이 편지를 띄웁니다'라는 마지막 구절은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달에 간 11편의 시조 가운데 8편을 시인들이 직접 낭송한 영상은 세종문화회 유튜브 채널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달에 도착한 시조는 오랜 세월 이어져 온 한국의 시정(詩情)이 지구를 넘어 미래 세대를 향해 남겨진 하나의 문화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지금, 달 위에서 또 하나의 달빛처럼 인류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의 임상경험



수박색의 피 색깔(2)

김 규 호(64, IL)

지난 호에 이어 옛날 얘기 좀 해야겠네요. 국립중앙의료원(NMC) 소아과 2년 3개월 동안 당뇨병 환자는 한 번도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나의 1년 차 레지던트 동기 중 한 명만 빼놓고는 전부 다 모교 출신이었고, 거의 대부분이 또 고교 동창이었고 여자 의사분들도 다 경기여고 출신들이라 놀랬는데, 희귀한 환자들은 많이 보았지만 그 흔한 기관지 천식이나 세균성 뇌막염 환자를 본 기억이 없어요. 3년 선배이신 손기용 선생이 소아과의 보배이셨고 그분께 많이 배웠어요. 하지만, 그분도 당뇨병 환자는 다루어 보신 적이 없을 것이에요. 미국에 와서 인턴할 때도 그랬어요. 인턴 때는 기대도 안 했으니까 당연하죠. 인턴은 좀 편히 지내려고 시카고 남부 Evergreen Park의 Little Company of Mary Hospital에서 했는데, 연봉도 6천 불이었고 저보다 1년 전에 도미하신 NMC 소아과의 수간호원이셨던 손금숙 여사가 Coldwater, 미시간에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병원에서 보내 준 국제선 비행기표 값이 625불이었는데, 나중에 월급에서 제하더라고요. 60년이 지난 지금과 비교해서 오르지 않은 것은 비행기 푯값뿐 인 것 같네요.

참 깨끗한 병원이었어요. 한국인 수련의도 벌써 몇 분 계시더군요. 1년 선배인 윤진수 형 내외분, 또 나중에 아주대 의무부총장을 지내신 강신영 형 내외분께서 베풀어주신 사랑을 지금도 잊지 못하겠네요. 또 손원일 제독의 동생이신 손원태 선생이 병리과 디렉터로 계셨기에 병리과도 2개월 돌면서 거의 외로움을 못 느꼈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손원태 선생이 평양에 수차례 방문하시고 김일성과 형, 아우 하면서 지내신 분이라는 것을. 조용하고 언제나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는 분이었어요. 한 번도 고되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 인턴 생활이었지요. 하지만 소아과 레지던트만은 더 좋은 병원에서 하고 싶었어요. 아첨 떠는 사람을 싫어하던 저였지만, 추천서를 잘 써준다는 내과 의사들 몇 명을 점찍어 그들이 회진할 때를 기다려 환자 차트를 들고 따라다녔지요.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 소심했던 내 성격도 모처럼 변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요. 하지만 먼 훗날 생각해 보니 성격은 변하지 않더군요.

인근에 Michael Reese 병원이 있었어요. 옛날 도미 전에 보았던 'Intern' 이라는 영화에서 Michael Reese에 합격했다고 열광하던 인턴도 생각났고요. 또, 우리 본과 4학년 때 미국의 저명한 소아과 교수 두 분이 이화여대 강당에서 강연한 적이 있는데, 하버드 메디칼 스쿨의 Dr. Charles Janeway와 시카고 메디칼 스쿨의 Dr. Jack Metcoff였어요. 그 Dr. Metcoff가 당시 Michael Reese의 소아과 과장이었던 것이에요. 지원하고 합격했을 때 나도 영화에서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마침 아는 친구가 거기 1년차 레지던트로 있다기에 조언을 들을까 해서 찾아봤지요. 뜻밖에도 2년차에 올라가지 못하고 플로리다로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겁이 났어요. 그 애한테 그런 일이 생겼다면 나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 고생문이 훤히 보이데요. 나중에 또 한 친구가 자기도 지원했었는데 안됐다고 하더군요. 다들 저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한 친구들인데 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좋은 병원일수록 월급이 적데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배우려고 미국에 왔으니까요. 1968년 7월 1일, 레지던트 근무 첫날이었어요. 첫날 당직에 걸린 거예요. 8am-5pm 일하고는 밤에 80여 명의 입원 환자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한숨도 못 자고는 그다음날 하루 종일 일한 후 오후 5시경 환자들을 인계하고 기숙사에 왔는데, 정말 정신이 몽롱하데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한순간도 눈을 붙인 적이 없었고요. 3일마다 한 번은 밤샘 입원 환자 당직과 자정까지의 외래 당직을 번갈아 하는 거예요. 지옥문에 들어섰던 기분이었어요. Illinois 대학 출신 백인 아이들 4명과 남아공에서 온 백인 아이 한 명, 그리고 저까지 여섯이 1년차로 같이 일하는데, 의대에서 실습을 많이 했었는지, 혹독한 인턴 수련을 받았는지, 당직 소아과 전문의에게 물어보고 했는지 또는 소아과에서 인턴을 하고 올라와서 그런지 일을 능숙하게 처리하데요. 저 자신도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꼼꼼히 적어놓은 수첩이 있었기에 좀 든든은 했지만 처음 보는 병들이 많았어요. 급성 살리실산 중독, 천식지속상태, 혈우병, 심한 탈수를 동반한 장염, 겸상 적혈구 위기증 등 별별 환자가 다 있더군요. 처음으로 보는 병들이었고 환자들이었지요. 전문의 교수의 개인 환자라면 그들에게 전화하여 지시를 받아야 했지만, 대부분은 그런 환자들이 아니었기에 우리가 처리해야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요. 어떻게 그 많은 처음 보는 병들을 2년차나 전문의의 도움 없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었는지 말입니다. 수많은 시간의 독습과 꼼꼼히 적어둔 그 쪼끄만 수첩의 덕이었어요. NMC 소아과 수련 2년 3개월 시절을 지내면서 모르는 사이에 준비된 의사가 돼 있었던 거예요. 아직도 영어 소통에 부담은 느꼈지만 동료 1년차 레지던트들도 좀 놀랬던 것 같아요. 기대 이상으로 내가 잘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을 여는 것 같았고 인턴들도 잘 따르더군요.

고된 생활은 계속되었지만 배우는 것이 하도 많아 즐거움뿐이었어요.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수액 요법에 관해서에요. 설사와 구토로 심한 탈수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 가령 10% 탈수에 나트륨이 120mEq라 할 때 6시간 후에 나트륨 126, 12시간 후에 130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액을 얼마나 주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것이지요. 계산해서 주다 보면 매번 들어맞더라고요. 주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주어야 하는지를 알고 주니까 꼭 도사가 된 것 같은 기분도 들었어요. 아무리 심한 장염으로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에 빠진 환자라도 완벽하게 치유시킬 수 있겠다는 자신을 가질 수 있게 됐지요. Dr. Metcoff가 저명한 소아 신장 전문의이시지만 전해질 불균형에 아주 철저한 분이셨기에 가능했어요.

얼마나 철저하셨는지 얘기해 볼게요. Dr. Metcoff가 아주 드물게도 한 번 당신 환자를 입원시킨 적이 있어요. 열여섯 살짜리 백인 소녀였는데, 신경성 식욕부진증으로 20 lbs의 체중 감소가 있었어요. 모처럼 보는 과장 선생의 환자였기에 모두 긴장했지요. 인턴, 나, 2년차 그리고 수석 전공의, 네 명이 처음으로 다 모여 어떠한 수액을 줘야만 할까 토론에 토론을 거듭했어요. 고심 끝에 결론을 찾고서 다 같이 말씀드렸지요. 과장 선생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특유의 미소를 띠시면서 '그냥 먹게 해, 그냥 마시게 해'. 철퇴를 맞은 기분이었지만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요. 상식을 무시했던 우리 모두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지만, 전해질 불균형에 철저하셨던 그분에게 그동안 얼마나 벌벌 떨어왔었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예였기도 하겠네요.

제가 은퇴할 쯤에는 응급실에서 소아과 환자에게도 등장성 생리식염수를 많이 주던데요, 1960-70년대만 해도 혈중 나트륨을 너무 빨리 교정하면 경련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여 천천히 교정해 주었던 것이에요. 0.2%나 간혹 0.45%를 썼지, 0.9% 등장성 식염수를 준 적은 거의 없어요.

얘기가 좀 빗나가지만 꼭 하고 싶네요. 파상풍 환자를 담당했을 때 병상에서 환자를 지극 정성으로 돌보았기에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던 같은 팀 인턴이 하나 있었어요. 하루는 이상한 환자가 입원했어요. 별안간 하지가 약해져서 걷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전에 본 적이 있는 자가 면역성 희귀 질환인 길랑-바레 증후군 같아서 그 방면으로 치료 방침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환자가 소변을 보는데 핏빛이었던 거예요. 길라ㅇ-바레에 혈뇨라니요? 기우뚱하고 있는데 그 인턴이 어느새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도서관에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뭘 출력해갖고 뛰어오는데, 읽어보니 횡문근 융해증 및 미오글로빈뇨증에 관한 논문이었어요. 또 소변검사 결과에도 적혈구가 없는 것으로 나왔고, 기가 막히게 이 인턴이 희귀병의 진단을 콕 찍어낸 것이었어요. 저는 책에서 읽어는 봤겠지만 기억에서조차 까맣게 사라졌던 그 병을 말입니다. 덕분에 합병증을 막을 수 있었지요. 그 인턴 이름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Dr. Mark Mahowald라고 미네소타 대학 출신이었어요. 이를 밝힘은 Michael Reese Hospital이 얼마나 좋은 교육병원이었었는지를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첫 날만 긴장과 우려 때문에 지옥문에 들어섰던 기분이었지, 그 나머지는 바빴어도 즐거웠던 기억만 남아 있네요. Northwestern 대학 부속병원에서 2년차 내과 레지던트로 있던 이재풍 형이 당직 아르바이트를 해서 처음으로 돈을 벌었다며 화려했던 Drake Hotel에서 스테이크 저녁을 사 준 것도 이때였어요. 나는 그때까지도 감히 그런 식당에 갈 생각은 못 할 때였지요. 2년차부터는 정말 할 일이 없을 정도로 편하게 지냈지요. 1년차가 다 잘들 알아서 처리하더군요.

저의 소아과 의사 43년을 대과 없이 또 보람 있게 마감하면서 잊지 못할 세 분의 스승들에게 감사하고 싶네요.

NMC 소아과 시절의 수석 전공의셨던 손기용 선생은 제 환자였던 모르키오 증후군 사례를 소아과 학회지에 발표하시면서 제 이름도 넣어주시고 학구적인 자세를 잃지 않게 해 주신 분이지요.

What과 How도 중요하지만 Why를 강조하셨던, 날카로우면서도 인자하셨던 Michael Reese의 소아과 과장 Prof. Jack Metcoff, 그리고 공명정대했던 Michael Reese의 소아과 시절 수석 전공의였고, 7년간의 Hornell, 뉴욕 생활을 접고 그가 개업하고 있는 Naperville, IL로 옮기게 도와주고 향후 27년 동안 우리가 은퇴할 때까지 나란히 개업하면서 신뢰 속에 당직 콜을 서로 커버해 주며 저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줬던 Dr. Nestor Alincastre, 이 세 분들, 정말 고마웠다고 말씀드리고 싶답니다. 두 분은 이미 귀천하셨지만 어디에선가 듣고 계시겠지요. 이런 게 영생 아니겠어요.

또 한 가지, 의견을 나눠보고 싶네요. 의사 말 잘 듣지 않는 환자들을 싫어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2년 전까지 제가 Hb A1C가 5.9 정도였는데 1년 전에는 7.1로 나오니까 주치의가 Metformin을 처방하는 거예요. 이때는 무한도전의 위험한 식생활로 135 lbs까지 올랐던 체중을 벗어나 도미시의 무게 112 lbs로 줄였을 때였던 것이에요. 당뇨병 환자로 낙인 받기 싫어 Metformin을 복용하는 대신 고단백 저탄수의 당뇨식이를 시도하기로 마음먹었다고요. 물론 Multistix를 구해 수시로 검사도 했고요. 3개월 후에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오데요. 왜 재처방 안 받아 가냐고요. 약을 리필했지만 건드리지 않았지요. 6개월 후 외래를 방문했을 때 5.7로 내려와 있더군요. 의사가 좋아하면서 또 처방하길래 솔직히 말했어요. Metformin에 손도 안 댔다고. 의사가 웃데요. 그럴 줄 알았었다고. 의사가 권했던 대장 내시경도 20년 거부했던 것을 그 의사가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었기에 말입니다. 시작도 안한 Metformin을 끊기로 결정했는데 웬걸 리필하라고 보험회사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의사도 힘들겠데요. 표준 치료법에 따라 처방 안 하면 점수가 깎이게 되니 말입니다. 의사가 왕이었던 옛날이 그리워지네요. 이만하면 제 주치의가 괜찮은 편이 아닐까요? Metformin 남용이 많을 것 같아 얘

The Wind

Joe H. Yun(69, MI)

I am the wind
Traveling endlessly from place to place
Sometimes ferociously journey the long distance
Sometimes leisurely I meander and roam around

I am the wind with raw power
Can manhandle over your fragility
Blow hurricanes and tornadoes to your way
Make mountains into pebbles

I bring hellish days from the valleys of Gehenna
And heavenly days from the firmament
I bring forth pitch black darkness with tempest
And yet, bright shining daylight with Zephyr as well

I am a gentle and mellow breeze
Play my own music
make butterflies and birds dance with me
Me, the colorless and the invisible

I am the wind
making trees to bow and leaves to rustle
I strew your joyless earthly thoughts and
Clear the air for the new and better days

I am the wind
Voice of the Earth, carrying messages to humanity
No matter how the world is spinning around
I will always be a part of you





백범 김구 암살사건 (6)

미국과 소련은 민족주의자를 원하지 않았다

온 기 철(71, 남가주)

1948년 1월초, 김구는 단정수립론과 남북통일정부론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였다. 이전까지는 이승만의 단정 주장에 정면으로 반대하지는 않았다. 이승만과 틀어졌다는 소문이 파다해 지자, 그는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지난 1월 기자 회견 때 선생님은 이승만 박사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밝히셨는데 지금의 심경은 어떠하신지?"하고 물었다. 김구는 "그 심정은 지금도 변함이 없소. 이승만 박사에 대한 나 김구의 충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요. 만고 남산 위의 소나무가 그 빛을 갈 지언정 나의 이 같은 마음은 추호도 변할리 없소. 그러나 그분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은 그분에게 맹종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통일된 독립정부의 수립에 대한 나의 신념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승만은 단정, 김구는 통일정부 수립이었다.

이 말을 들은 이승만은 "한국의 소나무가 시들어가고 있다."며 김구의 단정 반대를 못 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의 심경을 드러내었다.

2월 9일 김구와 김규식은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크리슈나 매논에게 남북한 동시 총선거 실시를 위한 남북협상을 재차 제안했다. '남한 단독 총선거를 실시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정부를 수립한 후 압도적인 득표율을 근거로 소련을 북한에서 축출하고 통일을 이룬다'는 이승만의 계획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제안이었다. 냉전이 이미 시작되어 소련과 미국이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으로 갈라지고 북한이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산주의 정부가 정착하고 있는 마당에 언론과 대다수의 사회 단체들은 김구와 김규식의 주장에 회의적이었다.

김구는 2월 10일 통일정부 수립을 절규하는〈삼천만 동포에게 읍소함〉이란 제목으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2월 16일 김규식과 공동으로 남북협상을 제안하는 서신을 북조선 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과 인민위원회 상임위원 김두봉에게 보냈다.

1948년 2월 26일 유엔은 남한 단독 총선거를 가결했다. 3월 1일 주한 미군사령관 하지는 조선인민대표의 선거에 관한 포고를 통해 5월 9일 선거를 실시할 것을 공포했다. 같은 날 김구는 김규식, 김창숙, 조완구, 조소앙, 조성환, 홍명희 등과 함께 남한 총선거 불참을 선언하였다.

3월 4일, 미군 검찰은 권총, 사진 등 김구가 장덕수 암살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피고인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트루먼 대통령 명의의 소환장에 따라 3월 12일 미군 군사법정에 증인 자격으로 출두하였다. 대위, 소위, 중령급의 미군 법무관들은 김구를 심문했고 김구는 배후 관련을 극구 부인했다. 아무런 혐의가 입증되지는 못했지만 김구의 법정 출두는 그의 명예와 위상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 김구와 김규식이 서한을 발송한 지 40일이 지나서 북로당, 조민당, 천도교청우당 등 6개 정당과 사회단체가 3월 25일 평양방송을 통해서 남북협상을 지지하는 남한의 17개 정당과 사회단체에게 남북연석회의를 4월 14일 평양에서 갖자는 제의를 했다. 3월 27일 김일성은 밀사를 통해서 '전조선 제정당 사회단체연석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초청장을 김구와 김규식에게 전달했다.

냉전이 고착화되고 북한이 소련 주도의 공산주의 국가로 안착되어 가는 정세는 통일정부론이 힘을 잃어가게 하고 있었다.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 유엔 간시하의 남북한 총선거 실패 등은 소련과 미국의 대립이 낳은 결과였다.

많은 지각 있는 인사들이 김구의 북한행을 만류했다. 신익희, 조소앙, 이철승이 간곡히 만류했으나 김구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광복군 3지대장이었던 측근 김학규도 반대했다. 남한 단독 선거에 참여하라고 권유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김구는 이것도 마다 했다. 장덕수 피살 사건 배후로 의심을 받아 재판정에 나가 심문을 받고 있는 김구는 정국의 전환이 필요했던지 현실을 외면한 선택을 하고 있었다.

김일성이 제안한 연석회의는 김구와 김규식이 원하는 요인회담과는 성격이 달랐다. 김구와 김규식은 이에 당황했다. 미군정은 물론 유엔임시위원단, 독촉(이승만), 한민당이 모두 반대했다. 그러나 김구와 김규식의 결심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들은 '자신들도 성공하리라고는 믿지 않는다. 막다른 골목에 처한 조국의 운명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으며 민족통일을 얻을 때까지 제2, 제3, 또는 제10의 회의라도 열 생각을 가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들에게 전혀 우군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4월 18일 문화인 108명이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1948년 4월 19일 김구 일행이 남북협상을 위해서 북으로 가려고 하자 이철승은 전국학련 학생 수백명을 이끌고 경교장 앞에 나타나서 '못 가십니다'를 외치며 들어 누었다. "이승만 박사의 노선이 분열되면 안 된다"고 하며 김구의 북행을 막았다. '못 가십니다. 가시려면 배를 지프차로 넘고 가십시오"라고 외쳤다. 김구는 학생들에게 호통을 쳤다. 그러나 학생들은 물러나지 않았다. 김신과 선우진이 학생들 앞에 나와 북행길을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이철승과 청년들이 해산했다. 그리고 김구 일행은 석탄이 들어오는 지하 통로를 빠져나와 허술한 쪽의 담을 넘어 승용차에 타고 북으로 향했다. 4월 20일 김규식 일행도 김구의 출발을 확인한 다음 곧바로 뒤를 따랐다.



김구와 김규식의 북행은 남한 단독선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각종 시위를 선동하고 테러를 일삼고 있는 남로당과 북한의 음모를 돕는 꼴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 시점에 김구와 김규식의 방북은 김일성에게 대단한 호재였다.

김구와 김규식은 통일정부 수립을 상의하기 위한 회담을 기대했지만 김일성과 김두봉은 원래 계획했던 '연석회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김구와 김규식은 이를 항의했다. 4월 26일 밤 김두봉의 집에서 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 4자 회담이 이루어졌다. 4월 27일에는 남북인사 15인의 회담이 이루어졌다. 김구와 김규식은 4자 회담에서 무엇인가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김일성과 김두봉은 연석회의가 끝난 후의 피로연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5월 1일 남북한의 56개 정당과 사회단체가 서명한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그 내용은 첫째, 우리 강토에서 외국군대가 즉시 동시에 철수할 것. 둘째, 외국군대가 철수한 이후 전조선 정치회담을 소집하여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즉시 수립하고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조선의 입법기관을 구성하여, 헌법을 제정하여 통일된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 넷째, 남조선의 단독선거결과를 승인하지 않을 것 등이었다.

합의내용은 외세를 배제하고 우리 민족끼리 상의하여 민주적인 통일정부를 수립하겠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의 좌익이 우세한 한반도의 여론을 고려하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었다. 외세가 없는 판국에서 김일성은 한반도에 통일된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할 자신이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5월 5일 평양에서 돌아온 김구와 김규식은 남북회담의 결과가 비교적 만족스러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남한의 단선과 단정을 반대하며 미소 양군의 철퇴를 요구하는데 동의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북한 지도자들이 단정을 절대로 수립하지 않겠다고 확언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회담에서 송전문제의 해결과 연백 등 저수지 개방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지적하면서 북행의 성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공동성명에서 발표한 대부분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반도 문제는 미소냉전의 한 가운데 있었다. 미국과 소련의 합의 없이 우리 민족끼리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였다. 김일성과 김두봉은 북한의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김구와 김규식은 남한에서 아무런 실권이 없었다. 김일성은 남한에서 명망 있는 정치지도자들의 이름을 빌려 자신들의 노선을 합리화 또는 정당화하려고 할 뿐 통일정부에는 관심이 없었다. 불행하게도 남북 통일 문제는 오늘날에도 외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48년 3월부터 미군정은 남한만의 단독 선거 실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원래 선거날을 5월 9일로 했는데 일요일이어서 기독교인들이 반발하자 5월 10일로 정했다. 김구의 당인 한독당 소속 정치인들도 김구가 북한에 있는 동안 후보자로 등록했다. 김구는 북한에서 돌아오자 마자 '나 없는 동안에 총선거니 머니 해서 입후보한 사람은 다 탈당해라'고 했다. 한독당 입후보자들은 대부분 후보를 포기하지 않고 탈당했다.

선거는 미군정이 주관했고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참관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남로당은 폭력으로 선거를 방해했다. 제주도 4.3사태가 가장 큰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제주도에서는 선거가 시행되지 않았다. 김구와 김규식 등 남북협상을 통한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단독 선거 불참 세력이었다. 이들에게 동조하는 국민이 많았다. 단선 참여 세력은 남북협상을 "총선을 파괴하려는 북한의 모략"이라고 비난하였다. 미군정당국은 '남북협상의 허구성'을 홍보하는데 선전 홍보활동의 중점을 두었다.

5월10일 선거는 198명의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의원을 선출했다. 당선자 스스로가 밝힌 소속 정당에 따라 분류한 당선자의 수는 (이승만)대한독립촉성국민회 54명, 한민당29명, 대동청년당 12명, 민족청년당 6명, (김구)한국독립당 1명, 조선민주당 1명, 기타 군소단체 10명, 무소속 85명 등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정파별 구성을 반영하지 못한 자료였다. 보다 정확한 통계는 85명의 무소속의원을 정파별로 분류한 국회선거위원회의 발표였다. 한민당 76명, 대한독립촉성국민회 61명, 한국독립당 17명, 대동청년당 16명, 민족청년단10명, 조선민주당 0명, 중도계10명 기타 10명이었다.

1948년7월21일 국회에서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선포되었다.

1948년 9월 7일, 제헌국회는 친일파 청산을 위한 반민족 특위법을 통과시켰다. 친일파 청산은 김구와 임정 세력의 오래된 숙원이었다. 친일파 청산에 앞장섰던 국회내의 소장파의원들은 이러한 김구의 노선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 이들 중 김상덕, 신성균, 오택관, 이문원 등은 임시정부 계열이거나 한독당 출신이었다. 그런데 김구 계열이 추진 중인 친일파 청산은 이승만 세력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었다. 이승만 정권의 장관 4명과 차관 14명이 일제 관료 출신이었고 경찰과 군 장성은 친일파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친일파 청산은 이승만 정부를 와해 시키는 정책이었다. 이승만은 반민특위 활동을 저지해야 했다.

1948년 9월 9일 북한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선포되었다. 38선 이북은 공산주의, 남은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되어 남북 분단이 확실해졌다. 그리고 미국과 소련이 대표하는 냉전이라는 이념 전쟁은 한 민족이 적대관계를 형성하는 비극을 연출하기 시작했다. 김구와 소장파 의원들의 남북협상을 통한 통일정부 수립 추진은 적화통일을 목표로 한 남로당의 주장에 동조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김구는 남북협상에서 김일성에게 이용당한 것을 알고 침울한 나날을 보냈다. 김일성이 2차 회의를 제의해 왔으나 거절했다. 1948년 7월 21일 김규식과 함께 통일독립자 촉진회를 결성했다. 남북협상으로 좌파라는 비난을 받은 김구는 친북인사들의 참여를 단속하고 북의 정부수립을 배신행위라고 단죄하여 좌익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어느 기자가 김구에게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감회를 물었다. 김구는 "오직 비통할 뿐이다"라고 대답했다. 1948년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유엔 총회에서 12월 7일에서 12월 12일까지 한국 문제가 다루어졌고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을 받았다. 이때 김구는 김규식 박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구성하여 유엔총회에 보내서 대한민국 정부의 유엔 승인을 막으려고 했다. 그러나 김규식은 김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미래한국: 김구와 대한민국 양동안 한국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여순사건, 반민특위, 김구 암살 사건

남한의 단독정부인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김구의 행위는 이승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1948년 10월 중순 여순사건이 터졌다. 전라남도 여수시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의 군인 2,000명이 중위 김지희, 상사 지창수 등 남로당 계열 군인을 중심으로 4.3 사건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무장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당시 국무총리 겸 국방장관이었던 이범석은 1948년 10월 21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순사건을 '공산주의자가 극우정객들과 결탁해 일으킨 반국가적 반란'이라고 규정했다. 10월 22일 '반란군에 고한다'는 제목의 포고문에서는 '반란군이 일부 그릇된 공산주의자와 음모정치의 모략적 이상물이 되었다'라고 하여 극우정객의 역할을 부각시켰다. 김태선 수도 경찰청장도 10월 1일 발생한 혁명의 용군 사건 수사발표를 하여 이범석을 거들었다. 단독정부에 반대하는 김구에 대한 이승만의 음흉한 모략이었다. 김구는 분개했다. "나는 극우분자가 금번 반란에 참여했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극우라는 용어에 관하여 다른 해석을 내리는 자신만의 사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반박 성명을 냈다. 극우가 김구라고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김구를 흠집내기에는 충분했다. 남로당과 북한도 단독선거를 반대했고 김구도 반대했다. 김구는 김일성을 만나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했고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하자고 했다. 얼핏 생각하면 좌파와 부화뇌동한 것처럼 보인다. 이승만 정권은 이점을 십분 이용하여 김구를 대한민국의 정치판에서 매장하려 했다.

2026-27 회비 및 후원금 현황

55대 회기 (2026년 7월 1일 ~ 2027년 6월 30일)

1956 박상기
1958 김시한 김해암 박호현 송세엽 이만택 이종국 이종용 최병두
1959 서경화 최용천
1960 권기홍 김인환 박명근 박우삼 박춘명 이광준 이덕숭 이종석 임종원 최홍락 한성수
1961 곽동린 김영철 김예흠 김화섭 박승균 박준환 안창현 이재승 이준우 이회백 장성환 장태환 조경하 조은순 최공창 최용성 한수웅 한혜원
1962 민경환 박종건 손영진 오태요 이기범
1963 고영희 김주응 김태웅 마동일 박승균 선종칠 송용덕 신경호 윤영섭 윤진수 이숭현 장인호 정관호 하상태
1964 강창만 권정덕 김용두 송원길 신두식 안연승 양운택 오수황 오유섭 윤홍기 이재풍 이정필 조성준 최준희 홍선경
1965 김덕진 손광호 이범석 이재진 이정의 이한승 이한중 임현재 전영균 정길화 채도경 채무원 최동욱 한재은 홍수웅 황규정
1966 곽일성 김용재 김우신 김진수 김진호 이명희 이영일 이인수 조의열 한일성 허서룡
1967 김성철 김영철 김재석 문경웅 박정일 우준균 유 달 이근웅 이민우 이우용 故 이준식 이태안 한서동 한영수
1968 김경인 김영남 김영덕 김재관 김주평 김 철 김태기 노영일 박정식 서윤석 송창호 안세현 윤병인 이병순 임공세 차재철 최 철 홍광신
1969 김병오 김중권 김창남 도상철 서 량 안병일 양재관 엄규동 오선웅 육순재 윤효윤 이치훈 이충호 임안무 임웅규 전덕성 조중행 천양곡 최종진
1970 김형달 박홍식 여준구 오석일
1971 강태수 김유식 김일영 김창구 김효순 박상효 배준호 서정자 양성훈 오상현 이종일 장 철 황동하
1972 김재석 김현배 오용호 이신재 이철재 정희현
1973 김정용 김천일 나두섭 민인기 서인석 이계석 조재종
1974 구재훈 권철수 유영준 임자은
1975 김원정 김자억 박인영 배영훈 전경배 조철영 한민우
1976 김정아 한승신 1981 남명호 1983 심인보 오도영
1985 김자성 1989 오무연 1999 임경빈
2001 김태곤 2003 조수정 2008 이익재
2014 강다솔

Green Project Donation

이종석(60)	75	차재철(68)	100	박인영(75)	100	서인석(73)	100
조철영(75)	100	김정아(76)	100	한승신(76)	100	남명호(81)	500

Scholarship Donation

박명근(60)	100	이종석(60)	100	한성수(60)	200	이재승(61)	100
이준우(61)	200	이기범(62)	375	김태웅(63)	8,000	안연승(64)	100
이재풍(64)	500	한영수(67)	300	차재철(68)	400	신영찬(69)	200
오석일(70)	200	김효순(71)	150	배준호(71)	300	김천일(73)	100
유영준(74)	150	김자억(75)	1,000	김정아(76)	100	한승신(76)	100
조영(故 조세진 71 부인)			16,000				

Charity Donation

박승균(61)	200	신두식(64)	100	이재풍(64)	500	홍선경(64)	100
이한중(65)	100	차재철(68)	100	김창구(71)	100	오용호(72)	300
민인기(73)	200	조철영(75)	100	김정아(76)	100	한승신(76)	100
심인보(83)	100						

General Donation

김해암(58)	50	권기홍(60)	1,500	박명근(60)	50	이종석(60)	75
김화섭(61)	100	박준환(61)	150	이재승(61)	150	이준우(61)	100
장성환(61)	200	조경하(61)	100	박종건(62)	200	오태요(62)	500
김태웅(63)	2,000	송용덕(63)	300	신경호(63)	100	권정덕(64)	100
양운택(64)	100	오수황(64)	100	이재풍(64)	500	조성준(64)	100
최준희(64)	300	이한승(65)	50	정길화(65)	100	채도경(65)	100
채무원(65)	200	황규정(65)	300	곽일성(66)	100	김진호(66)	100
이인수(66)	125	조의열(66)	200	문경웅(67)	200	유 달(67)	100
김영남(68)	300	노영일(68)	2,597	박정식(68)	100	서윤석(68)	1,000
이병순(68)	800	차재철(68)	100	김중권(69)	200	서 량(69)	400
전덕성(69)	300	조중행(69)	100	김형달(70)	500	김유식(71)	100
김창구(71)	200	박상효(71)	200	배준호(71)	100	서정자(71)	350
장 철(71)	100	김천일(73)	25	나두섭(73)	300	서인석(73)	100
유영준(74)	50	박인영(75)	50	조철영(75)	100	한민우(75)	100
김정아(76)	2,679	한승신(76)	100	김자성(85)	100	임경빈(99)	300
故 이준식(67, 부인)			2,000	조영(故 조세진 부인)(71)			4,000
신응남(前서울대미주총동창회장)			151				

Research & Fellowship Donation

배준호(71)	100	김원정(75)	100	김정아(76)	100	한승신(76)	25,100

AASCDTF Donation

한재은(65)	100	김정아(76)	100	한승신(7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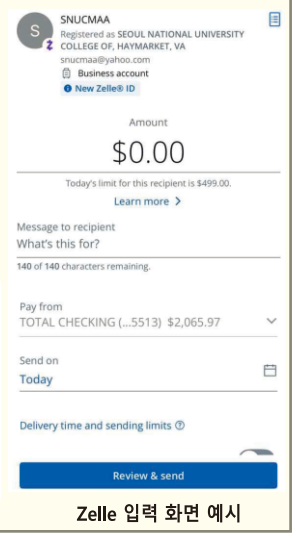
Zelle을 통한 회비 및 기부금 납부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1) Zelle ID는 snucmaa@yahoo.com입니다.
Zelle로 송금하시면서 메모로 성함과 졸업연도를 남겨주십시오.

2) 아래의 QR코드 혹은 https://forms.gle/VQ7rWGus2mubXSAbA로 회비 및 기부금 내역을 입력해주십시오. (Zelle 송금 없이 내역 입력만으로는 기부가 되지 않으니 유의해주십시오)

* 상세 회비 및 기부금 내역을 입력하시지 않으면 회비 및 일반기부금(general) 항목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QR 코드



Zelle 입력 화면 예시

Reader's Column – 편집실에 온 편지

양운택(64) 동문께서는 지난 7월호 '독자의 편지'에 실린 나수섭(50) 동문의 글을 읽으신 뒤, 자서전 'Atonement'를 꼭 읽어보고 싶다며 동창회 사무실로 연락해 왔으나 아쉽게도 나수섭 동문께는 남아 있는 책이 없었지만, 마침 서윤석 편집장께서 소장하고 계신 책을 양운택 동문께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래 글은 책을 받아 읽으신 양운택 동문께서 서윤석 편집장께 보내신 감사의 편지입니다.

시계탑을 매개로 선후배 동문들께서 서로 삶과 글을 만나고, 그 인연이 따뜻한 교류로 이어지는 모습은 우리 동창회의 정을 잘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례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계탑을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연락하고 싶은 동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동창회 사무실(snucmaa@yahoo.com)로 알려주시면 동문 여러분께서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정을 나누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편집자 주

Dr. 서윤석 편집장님 귀하,

보내주신 세 권의 책 너무나도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나수섭 선배님의 책 "Atonement"는 받는 즉시부터 읽기 시작해서 어제 다 읽었어요. 이렇게 훌륭하신 선배님을 언젠가 꼭 만나 뵙고 싶은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후배의 희망사항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Dr. 서의 시집도 벌써 읽기 시작했어요. 한영으로된 단행본 시집을 처음 저의 소장이 되니 이 또한 서 편집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겐 시집이 열 권 이상이 있어요. 여러 편의 시를 암송도 할수 있으며 걸을 때는 암송을 하면 Endorphin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우건 동기는 한국동기회 회장으로 수고가 많으시며 아주 건강하십니다. 권정덕, 홍선경 부부께서는 우리 64년 동기 회장으로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허선행 형과는 형제 의를 예과 때에 맺어 돌아가실때까지도 같이 한국 다녀오자고 약속을 했었지요.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형의 얼굴을 봤습니다. 저는 Kim's plan으로 대학병원에서 인턴 도중에 필라델피아로 와서 일반외과를 끝내고 그 다음날부터 마취과를 마치고 필라델피아 교외의 Bryn Mawr 병원에서 36년 group practice하고 2006년에 은퇴를 하고 지금은 캘리포니아 Laguna Woods에 온지가 11년이 됐는데 이 retired community에는 33명의 서울의대 동창이 살고 있으며 서너 분은 겨울에만 사시는 snow bird 이시지요. 서 선생님의 가족 사진을보니 너무 좋습니다. 저는 아들 둘에 딸 하나를 통해 여덟명의 손주가 있습니다. 큰아들과 딸은 의사이고 둘째 아들은 CFA로 모두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 Orange and LA 카운티에는 저의 동기생이 14명이 있습니다. 세 명은 건강 문제가 있으며 한 분은 snow bird이지요. 우리 동기는 김태환 동기의 훌륭한 리더십 덕분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약 7~8 부부가 모입니다. 너무나 글이 길어져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용서해 주실줄 믿습니다. 책, Atonement는 서 선생님 주소로 곧 보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창회를 위하여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는 서 선생님 내외분과 온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양운택(64) 배

조영 여사의 편지 7/31/2026

안녕하세요, 서윤석 선생님

이번 신문에 제 남편 고 조세진(71 졸업)에 관한 기사와 장학금에 대하여 정성스럽게 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사를 읽는 동안 남편이 평생 서울의대를 사랑하며 후배들과 의학 발전을 위해 헌신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또한 남편의 뜻과 삶을 아름답게 기억해 주시고 장학금의 의미까지 따뜻하게 소개해 주셔서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귀한 지면을 활애하여 이렇게 뜻깊은 글을 써주신 편집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가 더욱 발전하여 장학사업이 계속 이어져서 많은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배려 해주신 기사에 깊이 감사드리며, 편집장님의 건강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 드림.

농담 골목

머저리와 바보

어느 회사의 면접관이 얼굴이 긴 응시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여보게, 자네는 마치 넋 나간 사람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얼굴이 무척 길구먼. 자네 혹시 머저리와 바보가 어떻게 다른지 아나?"

면접관은 이 말을 들은 청년이 얼굴을 붉히고 화를 낼 줄 알았다.

그러나 청년은 태연하게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네, 결례되는 질문을 하는 쪽이 머저리이고 그런 말에 대답을 하는 쪽이 바보입니다."

면접결과 이 청년은 합격되었다.

정신병자

정신병동에서 정신병자 두 명이 독서 감상평을 나누고 있었다.

"너, 이 책 다 읽었니?"

"응, 다 읽었어."

"그래, 어땠는데? "

"난 이 책이 주인공만 많고 형식이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해."

"나도 마찬가지야. 책이 두껍기만 하고 영 재미가 없어."

이 때 간호사가 헐레벌떡 들어오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누가 대기실에 있던 전화번호부를 가지고 갔어?"

직업의식

막 수술을 마친 1.5세 한인 의사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고 메뉴판을 보고 있는데 주문을 받으려고 옆에 서 있던 종업원이 엉덩이를 긁고 있었다.

의사가 종업원을 쳐다보며 물었다.

"혹시 치질 있나요?"

종업원이 의아하다는 듯 의사를 내려다보면서 겸손히 답했다.

"죄송합니다. 메뉴판에 있는 음식 외에는 주문이 안됩니다."

이 덕 숭 (60 남가주)